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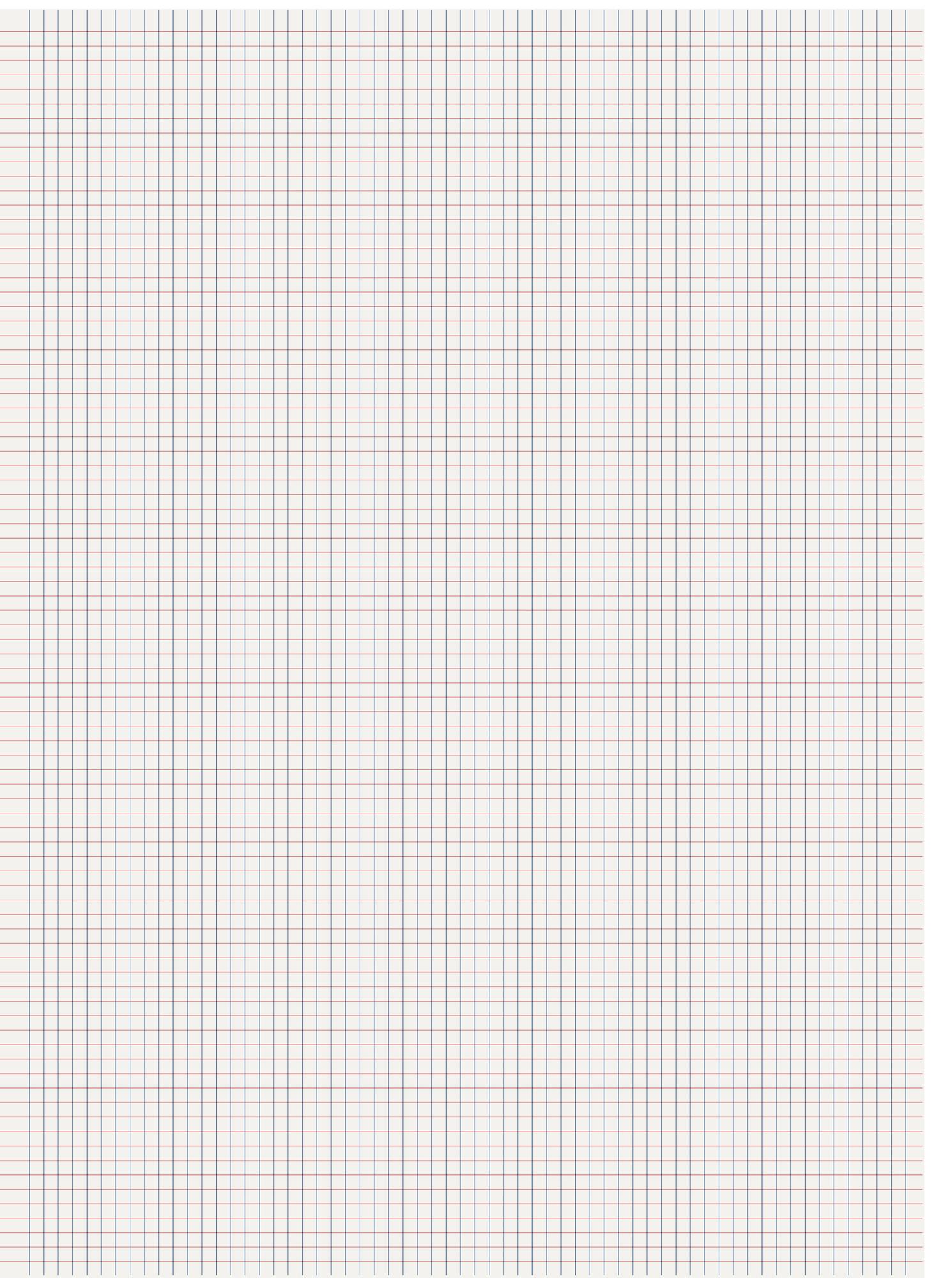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57138-6-8

2017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정한 원탁 토론회



3 함께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2017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 청정한 원탁 토론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  
정책제안 원탁토론회



## 2017 청정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글쓴이 드림센터 교육팀, 외부집필진

편 집 박경아, 유선숙

디자인 플랫폼(PLAT)

발행일 2017년 12월 31일

발행인 이창범

발행처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전 화 02-2051-8600

홈페이지 [www.dreamcenter.or.kr](http://www.dreamcenter.or.kr)

ISBN 979-11-957138-6-8

\*이 책의 독창적인 내용에 대한 무단인용,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 차례



### chapter 1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는 글 이창범	6
책을 펴내며 교육팀	7

### chapter 2 전문가 발제자료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김찬우	10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김지선	50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의, 이해,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염병훈	56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언 윤철경	61



### chapter 3 테이블별 회의자료

1조 청소년이 주체입니다 연윤실	68
2조 드림센터, '위기청소년을 위해 오늘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은실	73
3조 청정한 원탁토론회, 청정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다 이재민	77
4조 위기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백승호	81
5조 위기(X) 기회(O) 청소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김나영	84
6조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그 생생한 현장속으로... 김혜진	89
7조 '저, 위기청소년 아니거든요!' 임아영	93
8조 위기청소년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던 원탁토론회 함영주	97
9조 '위기청소년정책'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 주영은	101
10조 따로 또 같이 송종무	105

맺는 말 위기, 틀린것이 아닌 다른 것 교육팀	109
---------------------------	-----

---

여는글

청소년 시기는 참으로 다양한 에너지가 샘솟는 시기입니다.  
똑같은 에너지라 할지라도 때와 장소,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 힘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되기를 학수고대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순간 순간  
곁에서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화, 소통, 토론

의사결정

퍼실리테이션!

어쩌면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서투른 방법이지만 작은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열망으로 함께 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건전한 방법을 터득해 나가길 소원 하면서 내딛는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에 작은 디딤돌이 되어 주시며 눈여겨 봐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서울시와 여러 유관 단체를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31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장

이창배

드림센터 교육팀에서는 2015년 처음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의사결정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견은 동등하다’라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퍼실리테이션은 학생들, 교사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더욱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모두가 의견을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통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그로부터 약 3년 동안 학생들과의 공동체회의, 교사회의, 학부모 교육, 교사 교육과 실천의 경험을 담은 ‘청소년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출간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 및 교육, 정리 작업을 통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청정한 원탁토론회는 그동안 교육팀에서 해왔던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축제의 장입니다. 그동안 함께 이 소통을 배우고 실천하셨던 선생님, 학부모, 청소년 등을 초대하여 우리의 방식으로 나와 주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변화의 시작을 함께 하였습니다.

과연 위기청소년이란 누구이고 현재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물음을 안고 이 물음의 주체인 청소년과 평등한 시선을 가진 원탁토론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비록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모든 것들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러한 물음의 최전선에 있는 누군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 생생했던 목소리들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제안, 토론회 참가자들의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 회의 내용 등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긍정적으로 희망을 발견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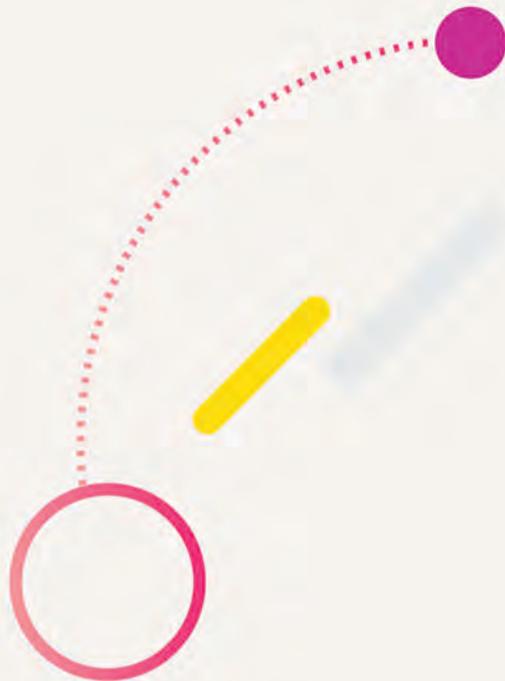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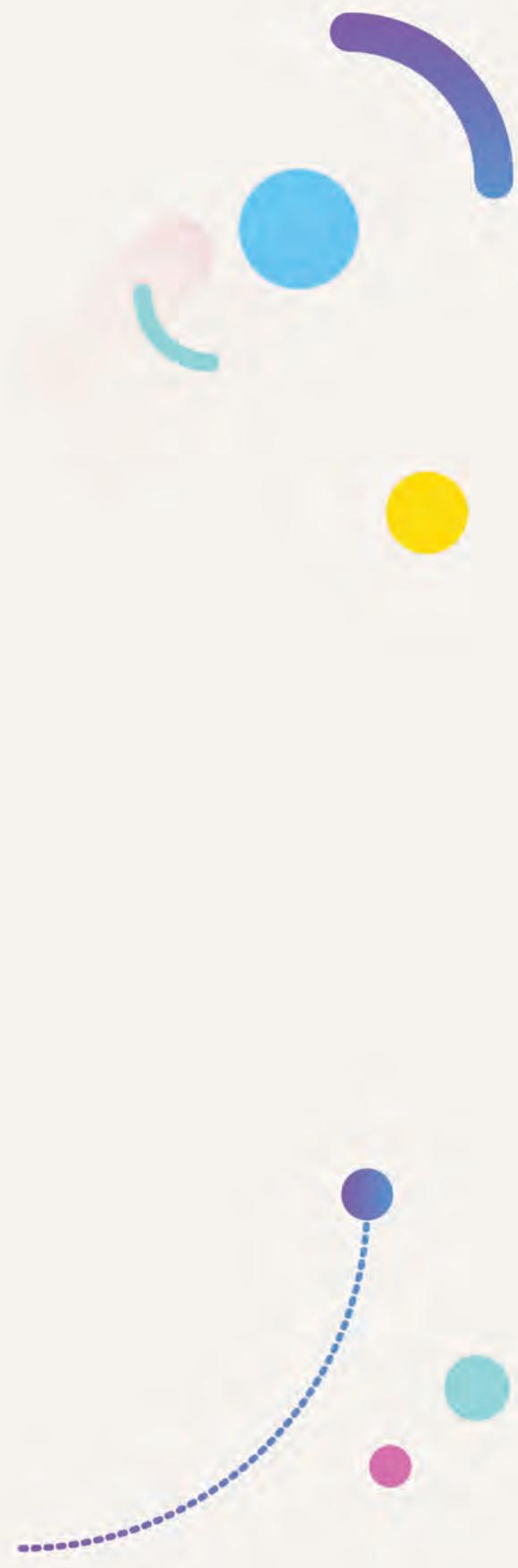
CHAPTER  
01

- 2017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칭정한 원탁 토론회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 위기 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



Opinion L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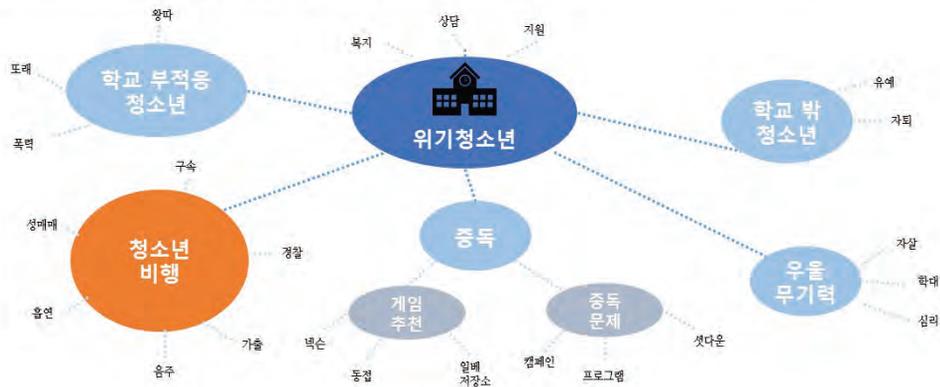
### TABLE OF CONTENTS

- 1 분석 개요
- 2 위기 청소년 이슈 변화
- 3 영역별 이슈 변화
-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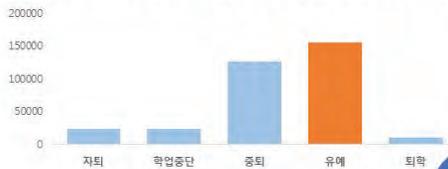
## 요약

- 위기 청소년 문제 중 청소년 비행 영역이 가장 데이터량이 많게 나타났으며, 주요 키워드로 흡연, 음주, 가출, 성매매 등이 나타나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유예와 자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은 원따 및 폭력 문제, 우울/무기력은 자살 및 학대 문제 등이 주요한 이슈로 나타났음
- 중독의 경우 신규 게임 추천 그룹과 중독 문제 그룹으로 크게 구분되어 논의가 나타남



## 1) 학교 밖 청소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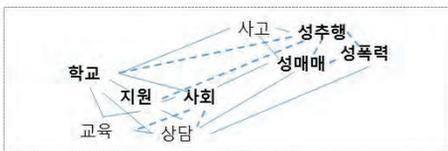
- 채널별 데이터 양의 경우 유예 데이터량이 많은데 특히 웹의 데이터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



- 자퇴나 퇴학 등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센터나 프로그램과 같은 복지 관련 부분이 상위 빈도를 보임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범죄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강조되고 있음



- 영화, 방송, 드라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슈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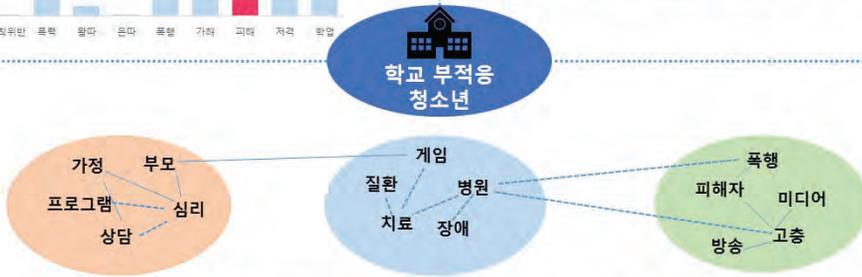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요약

• 채널별 데이터 량의 경우 피해의 키워드가 가장 높은 데이터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폭력, 폭행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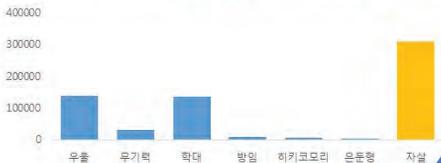
• 폭행, 범죄, 알파 등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 예방, 상담과 같은 노력이 주로 나타남



• 부적응 청소년의 원인 분석과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 나타남. 또한 게임, 질환, 장애, 병원 등 게임 중독으로 인한 부적응 청소년들의 학업 장애 및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됨. 그 외 청소년 폭행 및 폭력 관련 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남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요약

• 채널별 데이터 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자살에 대한 데이터량이 높아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자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학대로 인해 우울증을 느끼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나타남. 또한 커뮤니티로 일베저장소가 상위권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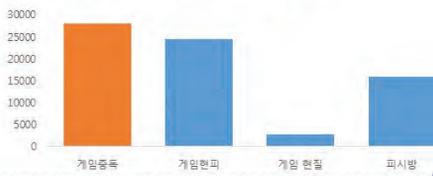


• 우울 무기력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심리 치료 및 학교와 부모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우울, 무기력 대한 질병이란 인식과 더불어 복지 차원의 예방 및 지원 측면이 강조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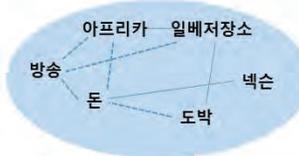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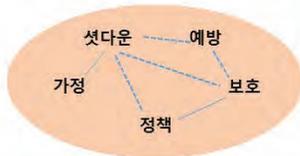


## 4) 청소년 게임중독 : 요약

• 채널별 데이터 량의 경우 웹이나 뉴스 보다 블로그의 데이터가 많았으며 중독이나 헌피 등의 이슈에 대한 데이터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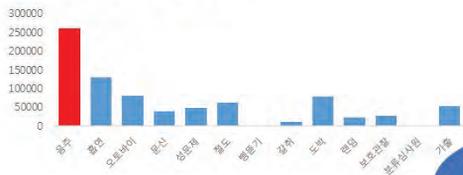
• 청소년게임중독을 예방하고해결하기위한셋다운과같은정책및센터의노력과비교하여 청소년인기게임인오버워치등게임지체에대한이슈가함께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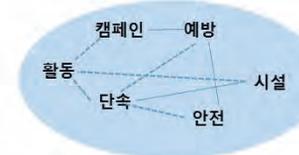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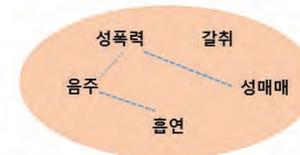
• 중독,게임,청소년에대하여방침,보호,정책등청소년게임중독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나공공기관의노력이나타나며, 동시에 중독문제가도박으로이어지는 범죄, 게임커뮤니티와방송에대한관심도높아 게임에대한규제와관심의대립된양상을보임

## 5) 청소년 비행: 요약

• 채널별 데이터 량의 경우 음주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흡연, 도박, 오토바이 등으로 나타남



• 흡연과 음주 등 청소년 비행 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위에 나타났으며,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음주,갈취,흡연등청소년비행문제로인한부정적인사회적인식과이러한청소년비행을예방하기위한캠페인,활동,단속등의그룹이대립되고있으며,성매매는 단순히 청소년과 청소년과의 문제가 아닌 성인과 관계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 처벌 및 관심이 강조되고 있음



## 1. 분석 개요

- 분석배경및목적
- 분석범위
- 분석프레임

## 1. 분석 배경 및 목적

### 분석 배경

- 위기 청소년이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직업을 갖거나 성인으로서 삶을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 (OECD)
- 우리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최고라는 현실에 처해있고,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최하위 수준. 이런 상황에서 학생지도에 열성적인 교원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신분상의 피해를 받음
-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소년 폭력이나 일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 이러한 현상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겪는 문제이며,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임



### 분석 목적

- 위기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사용자들의 인식 및 관심사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위기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1. 분석 범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_뉴스,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li> </ul>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01.01.~2017.07.31.(위기청소년)</li> <li>2016.01.01.~2017.07.31.(학교밖 청소년 외 4건)</li> </ul>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li> </ul>
분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버즈분석: 주요 키워드의 문서량을 파악</li> <li>이슈분석: 분야별 상위 빈도 키워드를 통해 이슈 확인</li> <li>시계열분석: 월별 주요 이슈 키워드의 변화 확인을 통한 관심도 변화 도출</li> <li>네트워크분석: 키워드 간 동시출현 빈도를 도출하여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하여 단어 맥락 분석</li> <li>CONCOR분석: 주요 키워드별 군집 분석 진행</li> <li>감성분석: 주요 긍/부정어의 시기별 변화 확인</li> </ul>

## 1. 분석 프레임

- 위기청소년 데이터는 6개의 대분류, 41개의 연관어를 기준으로 데이터 셋을 구성함.

Category	Sub Category	Category	Sub Category
위기 청소년	위기 청소년	우울, 무기력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		우울
	자퇴		무기력
	학업중단	학대	
학교 부적응 청소년	중퇴	방임	히키코모리
	유예	온라인	자살
	퇴학	청소년 +	게임중독
	또래	게임 + 현피	게임 + 현실
		교칙 위반	피시방
	폭력	청소년 +	음주
	은따		흡연
	왕따		오토바이
	폭행		문신
	가해		성문제
피해	절도		
저격	행동기		
학업	감위		
	도박		
	랜덤		
	가출		
	보호관찰		
	분류 심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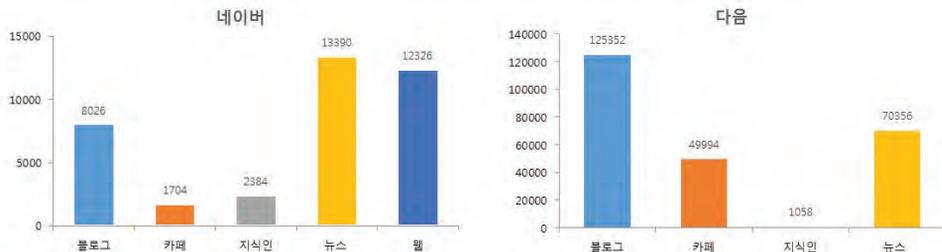
## 2. 위기 청소년 이슈 변화

- 채널별데이터량(네이버, 다음)
- 일별 정보량
- 주요 키워드
- 네트워크분석
- CONCOR분석
- 정서 분석

### 1) 위기 청소년 채널별 데이터 량(네이버, 다음)

**채널별데이터량** : 네이버, 다음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위기 청소년 관련 채널별 데이터 량을 보면, 다음이 네이버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있었으며, 각 채널별로 보면, 다음 블로그가 125,352건으로 가장 높았음.
  - \* 다음의 블로그의 데이터 많은 것은 국내외 블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네이버 블로그 역시 다음 블로그 데이터에 포함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크게 증가한 것임
- 다음으로 뉴스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높아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뉴스	블로그	카페	지식인	웹
네이버	13,390	8,026	1,704	2,384	12,326
다음	70,356	125,352	49,994	1,058	

\* 다음 웹의 경우 기간 설정이 되지 않아 수집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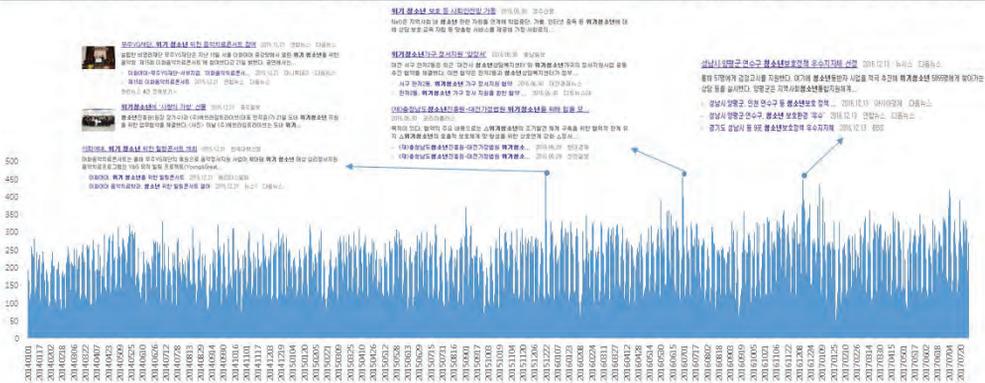


## 2) 위기청소년 정보량 추이

### 정보량 추이

:정보량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 일자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설명함

- 위기청소년 일자별 정보량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큰 폭의 증감이 없이 데이터 량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됨
- 시기별로는 학기 중인 3~7월, 9~12월 동안 데이터 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방학 기간 동안에는 학교에서 관련 이슈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으로 이수가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데이터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5년 12월 21일(469건)으로, 지자체별로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한 콘서트,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증가한 것임



## 3) 위기청소년 주요 키워드

### 주요 키워드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빈도 100개를 추출

- 위기청소년 관련 주요키워드를 보면 지원, 상담, 복지 등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 기관의 예방 활동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위기청소년의 위기 영역에 대해서는 폭력, 자살 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게임, 흡연 등이 있었음

청소년	253,521	프로그램	17,800	희망	10,402	시간	7,421	정부	5,630
위기	151,283	문화	17,684	영화	10,392	치료	7,132	관심	5,618
위기청소년	95,810	상황	17,240	소년	9,548	자립	7,112	경찰서	5,552
지원	82,640	여성	17,190	정신	9,394	시작	6,970	위원회	5,548
상담	66,637	건강	16,358	전문	9,378	마음	6,944	진로	5,512
학교	50,099	폭력	15,358	사랑	9,242	자신	6,916	능력	5,462
교육	49,844	자살	14,637	체계	9,240	가능	6,867	벌칙	5,462
센터	46,145	아이	13,888	정책	9,184	자녀	6,792	방법	5,372
사회	42,626	학업	13,550	극복	8,668	추진	6,502	도움	5,216
복지	41,008	꿈	13,274	행복	8,528	성공	6,368	대응	5,196
아동	27,279	기관	12,487	미래	8,473	과정	6,260	비행	5,096
가족	22,064	안전	12,020	이야기	8,238	이상	6,149	법	5,002
가족	20,535	사람	11,424	장애	8,094	기회	6,128	교육청	4,993
보호	20,448	실시	11,338	시설	8,064	거리	6,082	긴급	4,850
학생	20,277	부모	11,328	참여	7,960	살	6,054	이해	4,756
예방	20,018	생활	11,302	실력	7,898	생명	6,020	회복	4,665
활동	19,492	심리	10,904	연계	7,864	집	5,938	게임	4,342
문제	19,065	말	10,862	사례	7,698	해결	5,762	고민	3,650
대상	18,756	환경	10,640	관리	7,577	협력	5,672	흡연	3,430
운영	18,130	성장	10,512	생각	7,440	대처	5,654	갈등	3,268



### 3) 연도별 주요 키워드\_2014

**주요 키워드** : 2014년 기간 동안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빈도 100개를 추출

- 2014년 주요 키워드로는 학교와 지역 청소년 센터의 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상위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자살, 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이나 희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나타남
- 그 외 교사, 전문가의 역할 강조 및 위기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 등의 정부 활동이 일정 부분 나타남

청소년	61,186	대상	4,204	행복	2,168	집	1,518	변화	1,142
위기	40,918	상황	4,200	가출	2,124	사고	1,510	도움	1,132
위기청소년	21,448	보호	3,988	정책	2,100	생명	1,508	내용	1,126
지원	16,668	여성	3,614	진행	2,032	대처	1,490	비행	1,126
상담	14,992	건강	3,344	장애	2,002	방법	1,480	법	1,122
교육	11,706	안전	3,222	미래	2,000	정부	1,438	대안	1,116
학교	11,366	생활	3,158	체계	1,922	전국	1,402	거리	1,114
사회	9,908	심리	3,124	참여	1,910	게임	1,302	안내	1,104
센터	9,084	경제	3,004	실험	1,910	진로	1,296	의식	1,100
복지	9,048	부모	2,938	마음	1,910	이해	1,266	집단	1,100
문제	5,396	학업	2,836	사례	1,902	발생	1,262	사건	1,036
가족	5,394	관련	2,642	소년	1,896	범죄	1,254	교사	1,036
예방	4,760	사랑	2,588	극복	1,820	위원회	1,202	이유	1,024
학생	4,722	이야기	2,544	치유	1,784	위기관리	1,198	전문가	1,024
가정	4,598	꿈	2,492	시간	1,784	회복	1,198	친구	1,020
문화	4,546	성장	2,444	시작	1,754	관계	1,168	경찰서	1,018
자살	4,316	환경	2,442	기회	1,682	특별	1,150	유일	1,010
폭력	4,252	정신	2,346	출연	1,530	긴급	1,148	중독	1,010
프로그램	4,212	희망	2,340	해결	1,530	세대	1,144	정서	998
		생각	2,178	관심	1,520	협력	1,144	이혼	986

### 3) 연도별 주요 키워드\_2015

**주요 키워드** : 2015년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빈도 100개를 추출

- 2015년의 경우 지역의 위기청소년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청의 역할이 강조되고 나타남
- 특히 성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 2014년도에 비해 강조되고 있으며, 집단, 사각지대, 학원 등 폭력이나 범죄의 범주가 학교가 아닌 학원 등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위에 나타남
- 반면, 친구, 또래, 해소 등 교사나 외부의 개입이 아닌 학생들 간의 위기관리 측면도 일정 부분 나타남

청소년	66,822	심리	2,880	집단	1,086	인식	708	등급	528
위기	40,926	재공	2,824	중독	1,080	학원	684	사이버	526
위기청소년	25,462	개최	2,464	고민	1,044	피해자	676	사회안전망	516
상담	17,542	정책	2,444	피해	1,044	소통	652	상처	516
학교	14,608	가출	2,370	계중	1,016	개선	648	해소	510
지역	7,244	이야기	2,296	인터넷	994	사각지대	628	스트레스	502
가정	6,032	미래	2,082	인성	994	고등학교	626	위기탈출	502
학생	5,808	장애	1,940	경찰	956	성매매	626	우울증	500
가족	5,750	치료	1,772	개입	950	법률	624	노출	494
예방	5,504	범죄	1,630	위험	930	또래	608	집단	492
문제	5,010	관심	1,598	갈등	884	돈	586	방지	486
보호	4,986	도움	1,432	사고	882	유해	554	신고	476
문화	4,798	비행	1,406	위기관리	862	빈곤	548	죽음	474
프로그램	4,790	내용	1,402	제도	860	기간	548	목적	464
대상	4,756	교육청	1,398	출연	850	방향	546	미של	448
자살	4,494	친구	1,296	교사	850	사실	546	음주	444
폭력	4,330	행사	1,286	중가	802	불안	544	공감	440
학업	4,030	해결	1,270	원인	770	저소득층	542	계기	440
생활	2,938	관계	1,256	성폭력	760	자유	540	대안교육	438
안전	2,880	대응	1,224	부적응	722	가정폭력	534	소외계층	406



### 3) 연도별 주요 키워드\_2016

**주요 키워드** : 2016년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100개를 추출하고 이를 설명함

- 2016년의 경우 전년과 유사하게 위기청소년상담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복지 키워드가 상위에 위치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복지 자원의 보호와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었음. 또한 문화 영역이 강조되고 있음
- 그러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빈도는 높으나 그에 반하여 대응, 대책 등의 빈도는 전년에 비하여 빈도가 낮아 현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황 공유 정도에서 머무는 것으로 보임

청소년	72,928	문화	4,822	정책	2,588	전로	1,506	방안	1,142
위기	39,631	꿈	3,944	정신	2,454	계획	1,502	구조	1,136
위기청소년	28,700	독력	3,798	극복	2,426	법	1,484	정서	1,136
지원	25,140	기관	3,705	행복	2,278	기회	1,466	집단	1,132
상담	20,003	자살	3,694	장애	2,202	도움	1,464	중독	1,130
선택	13,967	실시	3,610	공유	2,170	관심	1,462	유해	1,078
학교	13,919	학업	3,594	치료	2,134	범죄	1,436	저소득층	1,070
교육	13,378	안전	3,536	거리	2,130	방법	1,432	게임	1,048
사회	12,190	환경	3,482	이야기	2,098	교육청	1,379	어려움	1,040
복지	12,022	재공	3,192	차입	2,026	취약	1,366	고민	1,026
보호	6,750	성장	3,170	생명	1,946	친구	1,318	원대	1,014
가정	6,194	가출	3,130	마음	1,918	관계	1,289	대책	1,012
예방	5,778	부모	3,078	생각	1,908	회복	1,263	힘	1,000
대상	5,558	희망	2,924	자녀	1,882	계중	1,256	피해	998
운영	5,262	심리	2,898	경찰서	1,758	지도	1,246	인성	992
학생	5,257	생활	2,864	전국	1,748	노력	1,244	인터넷	990
문제	5,152	체계	2,804	해결	1,660	발생	1,214	인권	940
여성	5,096	전문	2,804	집	1,614	긴급	1,214	성매매	782
상황	5,032	필요	2,648	비행	1,552	의식	1,172	사각지대	746
프로그램	4,966	미래	2,593	대처	1,524	이해	1,160	성폭력	746

### 3) 연도별 주요 키워드\_2017

**주요 키워드** : 2017년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100개를 추출하고 이를 설명함

- 2017년 위기청소년 관련 주요키워드를 보면 성매매, 성폭력, 성범죄, 미성년자, 성추행, 조건만남 등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
- 특히 스마트폰, 온라인 등으로 인하여 범죤나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그 외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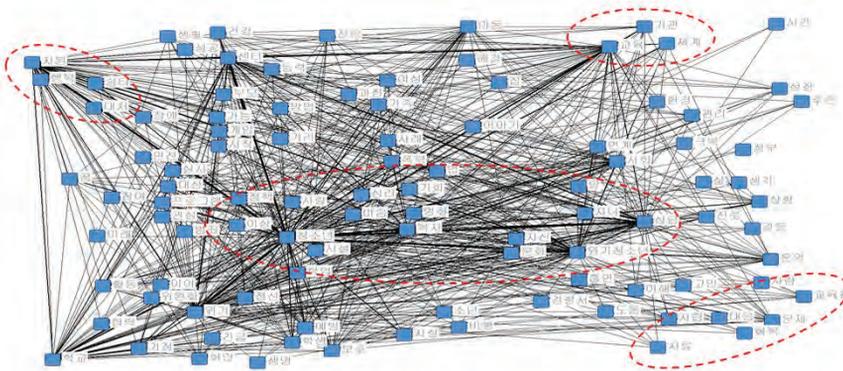
청소년	47,039	심리	1,762	경찰	820	해소	546	목표	336
위기	26,202	정신	1,636	변화	818	사각지대	546	조직	328
위기청소년	18,086	마음	1,214	정서	814	갈등	526	미성년자	316
지원	17,910	해결	1,208	중독	772	노출	522	사이버	306
상담	12,750	교육청	1,196	성	745	성범죄	506	스트레스	304
복지	8,474	기회	1,118	친구	734	부작용	504	약자	280
가정	4,772	전로	1,108	피해	730	가정폭력	496	청소년센터	278
보호	4,288	생각	1,096	게임	728	현실	482	차별	272
학생	4,150	도움	1,076	집단	706	유관기관	476	스마트폰	272
여성	3,706	성매매	1,030	인권	698	유해	432	자아	270
예방	3,658	범죄	1,028	힘	682	피해자	430	우울증	239
프로그램	3,438	계중	1,022	저소득층	670	학대	430	위기탈출	238
가족	3,231	대처	1,012	처벌	650	돈	422	실태조사	238
문제	3,109	취약	982	위기관리	614	사회안전망	402	치안	236
학업	2,832	거리	952	고민	606	대안교육	400	드래	236
폭력	2,652	법	934	위험	596	근절	396	분노	232
환경	2,056	비행	890	대책	562	소외	384	조건만남	226
정책	1,886	인터넷	854	대안	552	자유	382	온라인	226
자살	1,867	이해	838	인식	550	불안	344	성추행	208
가출	1,864	사건	826	성폭력	550	졸연	340	소외계층	200



## 4)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 단어 간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맥락을 분석하는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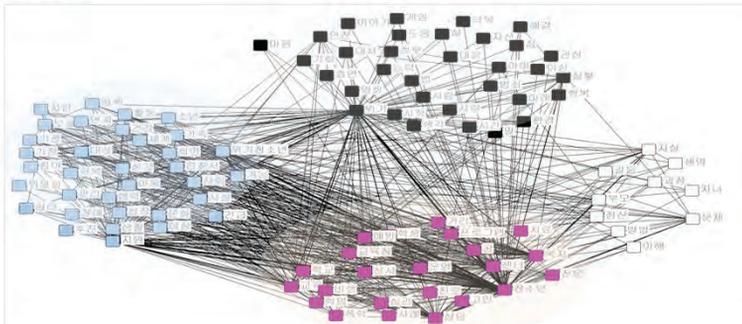
-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청소년, 교육, 상담, 지원, 센터 등의 키워드가 주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네트워크 중심에는 폭력, 사례, 심리, 복지 등의 위기청소년 폭력 및 기타 사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외부에서는 학교, 교육청, 지원 등 주요 기관 이 그 활동과 연결되어 나타남



## 5) CONCOR 분석

**CONCOR 분석** : 단어 간 상관관계에 따른 클러스터링하여 유사한 단어로 묶음

-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클러스터링한 결과, 주요 그룹으로 위기청소년의 정책적 지원 및 대응에 대한 그룹으로 회복, 보호, 자립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이 그룹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룹(아래)은 교육청의 학교에서의 비행,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예방 프로그램 그룹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
- 그 외 정부의 대처에 대한 메시지로 위기청소년의 범죄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강조 가 분리되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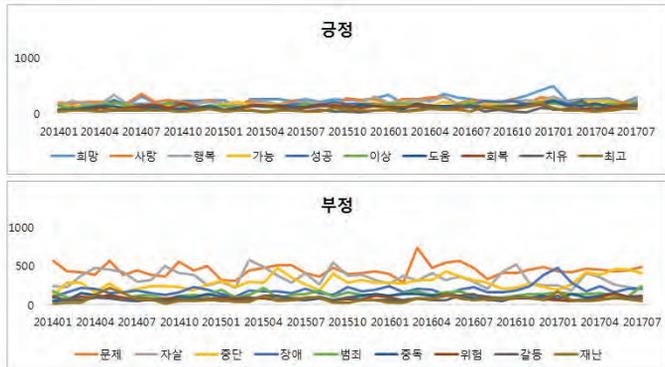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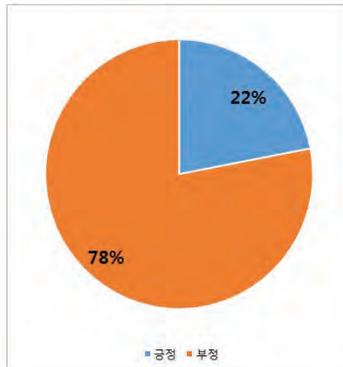




## 6) 정서 분석

**정서 분석** : 긍정, 부정 키워드의 비중과 각각의 키워드의 월별 빈도와 특성을 설명함

- 정서 분석을 한 결과, 부정 키워드가 78%를 차지하며, 긍정 키워드의 3배 이상 데이터량이 높게 나타남. 이는 위기청소년 데이터 특성상 범죄, 위기 등의 부정적 텍스트가 많기 때문에 부정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
- 긍정 키워드 중 희망, 사랑, 행복 등의 키워드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 청소년의 상담이나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하면서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임. 부정 키워드 중 위기, 중독, 자살, 범죄 등 키워드와 더불어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었음



Opinion LIVE

### 3. 영역별 이슈 변화

- 학교밖 청소년데이터
- 학교부적응 청소년데이터
- 우울, 무기력 청소년 데이터
- 청소년게임중독데이터
- 청소년비행데이터



## 1) 학교 밖 청소년: 채널별 데이터 량

**채널별 데이터 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채널별 데이터 량을 보면 유예와 중퇴 관련 데이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자퇴는 다른 키워드들이 비하여 지식인의 데이터가 41%로 차지할 정도로 데이터 량이 높아 학생들의 자퇴 관련 정보를 지식인을 통해 문의하는 것으로 확인됨. 중퇴의 경우 웹 채널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1) 학교 밖 청소년: 월별 정보 량

**월별 정보 량** : 정보 량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 일자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설명함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월별 정보 량을 보면 유예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 량이 증가하며, 중퇴의 경우 데이터 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각 데이터에서 학업중단의 경우 2016년 9월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문제에 언급되면서 관련 보도 증가로 데이터가 증가함
- 중퇴의 경우 2017년 5월 16일에 516건으로 가장 높은 데이터가 집계되었고 이때, 자유학기제 대안과 중퇴한 부산 청소년의 자살이 이슈가 되었음
- 유예의 경우 2017년 4월 13일에 1010건으로 가장 높은 데이터 량이 집계되었고 이때,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교장의 선고유예가 이슈화 되었음





## 1) 학교 밖 청소년: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100개를 추출하고 이를 설명함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학업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유예나 자퇴 등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문화, 영화, 드라마 등의 매체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다수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생 상담이나 교육 등이 상위에 나타나고 있으나 그 외 징역, 경찰, 법률, 법원, 구속 등 청소년이 피해자로 노출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음

청소년	109,888	선고	12,757	영상	7,463	가족	5,996	준비	5,098
공감	63,226	자퇴	12,205	자신	7,437	기관	5,984	필요	5,096
정보	48,156	문화	11,817	법	7,430	보장	5,960	확대	5,091
학교	35,088	협의	11,474	기소유예	7,383	강화	5,944	결과	5,053
집행유예	30,866	진행	11,164	안전	7,370	검찰	5,832	회의	4,989
지원	30,248	운영	10,860	이용	7,212	구속	5,802	결정	4,948
유예	26,936	여성	10,859	근로법	7,146	퇴학	5,747	범죄	4,947
학업	21,925	징역	9,510	활동	7,074	병원	5,712	발생	4,875
센터	21,370	어린이	9,486	문제	6,968	교사	5,698	인터넷	4,846
방침	21,061	위원회	9,174	법률	6,810	고등학교	5,586	체험	4,840
교육	18,920	영화	8,428	추진	6,809	기준	5,474	위기	4,836
방송	17,176	조사	8,359	광고	6,706	중퇴	5,454	논란	4,815
보호	16,727	시대	8,247	드라마	6,430	이유	5,444	개입	4,700
사회	16,658	생활	7,847	사랑	6,236	성장	5,293	사건	4,643
정책	15,510	경찰	7,797	예방	6,218	기소	5,252	폭력	4,319
공개	14,763	시작	7,709	법원	6,204	치료	5,230	성매매	3,473
그룹	14,275	전문	7,625	성	6,197	내용	5,216	성추행	3,373
대상	14,121	사망	7,624	신청	6,125	시행	5,130	불법	3,278
상담	13,907	사건	7,504	특별	6,022	방문	5,119	주류	3,207
학생	13,655	미래	7,463	현장	5,999	시민	5,100	미성년자	2,807

## 1) 학교 밖 청소년: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의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세부 키워드 빈도를 보면 유예의 경우 법과 관련된 키워드가 자주 나오며, 자퇴나 중퇴는 교육이나 방침 등 지원대책의 키워드가 나타남
- 학업 중단은 경우 다른 키워드와 다르게 폭력, 가출, 부적응 등 직접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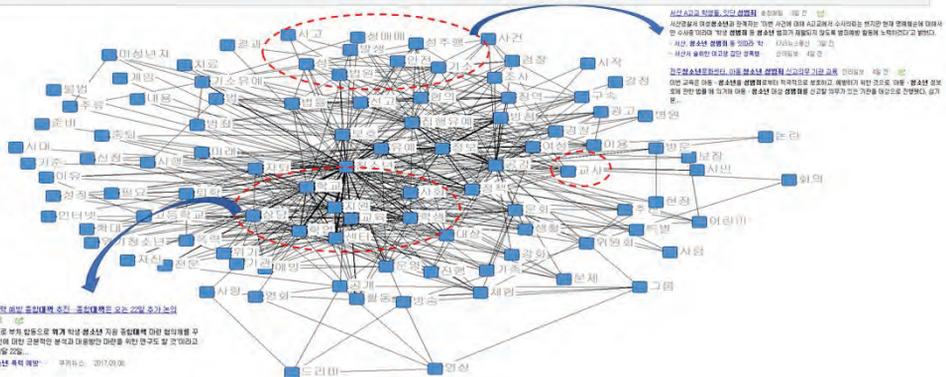
유예	자퇴	중퇴	학업중단
공감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자퇴	정부	학업중단
정보	학교	중퇴	학업중단
집행유예	상담	지원	학교
유예	센터	미래	지원
기간	고등학교	학교	센터
선고	법원	정보	학생
보호	지원	여자	교육
지원	정보	교육	상담
정책	학생	전문	꿈
협의	보호	정책	사회
성역	교육	폭력	유형
자본	방침	프로그램	예방
기소유예	검정고시	관리	복지
여성	꿈	복지	프로그램
사회	방법	개입	교육청
위반	학업중단	신청	지역
이상	장학	관심	위기
학교	고민	불법	가정
경찰	퇴학	논란	검정고시
사건	생활	대학고	위기청소년
회생	생각	결과	복지
법원	친박	중재	폭력
법률	중년	상황	보호
법	재직	법	진로
기소	이상	혐의	생활
성	공감	상담	가출
조사	심리	가족	대학
구속	진구	보호	인터넷
징역	통계	기관	부리응



## 1) 학교 밖 청소년: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 상위 빈도 단어 간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맥락을 분석하는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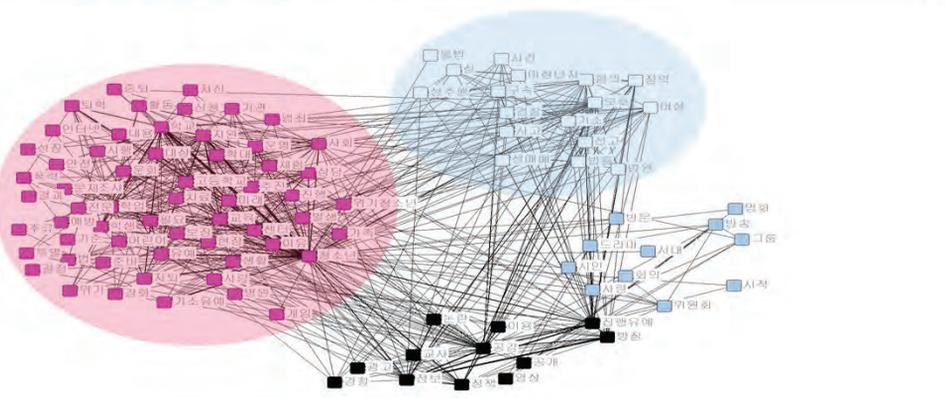
-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청소년, 학교, 사회, 유예 등과 같은 주요 키워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학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음. 또한 청소년을 기준으로 지원, 교육, 센터, 상담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및 활동이 주로 나타남. 그 이외에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가 이슈로 나타남에 따라 법적 해결이 주변에 나타남
- 청소년 문제에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교사의 경우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하고 있음



## 1) 학교 밖 청소년: CONCOR 분석

**CONCOR 분석** : 단어 간 상관관계에 따른 클러스터링하여 유사한 단어로 묶음

-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클러스터링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에 폭력, 중독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학교와 유관 센터의 활동이 큰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성범죄 관련 피해 분야가 하나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나타남
- 그 외 영화, 방송, 드라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부분이 분류되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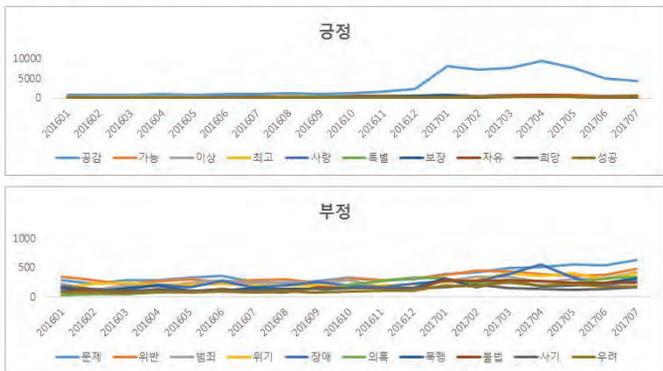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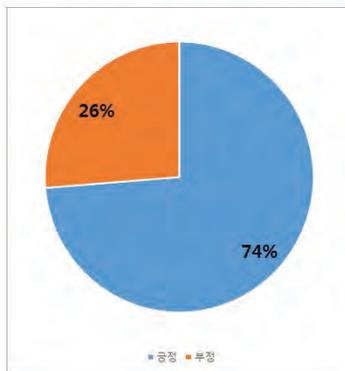




## 1) 학교 밖 청소년: 정서 분석

**정서 분석** : 긍정, 부정 키워드의 비중과 각각의 키워드의 월별 빈도와 특성을 설명함

- 정서 분석을 한 결과, 긍정의 키워드가 74%로 부정의 키워드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긍정 키워드 중 공감 키워드가 점점 높은 데이터량을 보이는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공감 하자는 의견과 이에 관련된 행사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부정 키워드 중 문제와 장애의 키워드가 점점 높은 데이터량을 보이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와 대상 그리고 피해자들의 후유증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채널별 데이터 량

**채널별 데이터 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학교 부적응 청소년 관련 채널별 데이터 량을 보면 전반적으로 폭력의 키워드가 가장 많은 데이터 량을 차지하며, 그 뒤로 왕따, 또래 순으로 나타남
- 교직원만이 아니라 은따의 경우 상대적으로 데이터 량 높지 않았으며, 특히 은따의 경우, 자신이나 친구가 은따를 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인하여 지식인 채널에서 데이터 량이 일정 부분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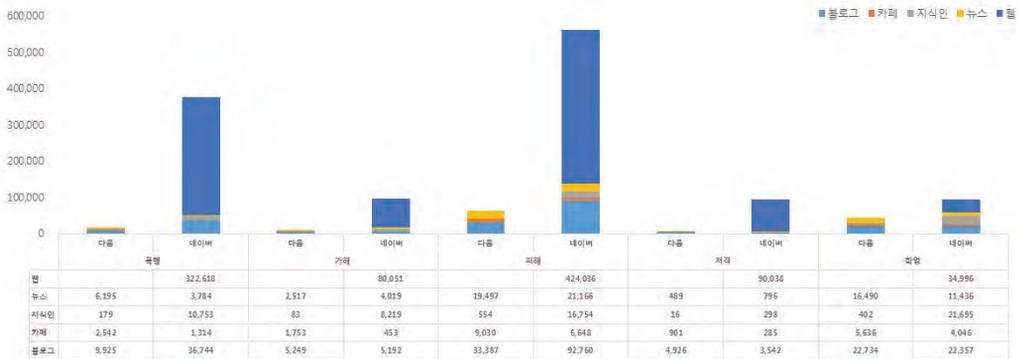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채널별 데이터 량

**채널별 데이터 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폭행의 경우 전체 데이터에서 웹 데이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청소년 폭행이란 키워드가 폭력이나 기타 범칙과 연결되면서 상대적으로 웹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 학업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과 관련된 문제와 해결에 대한 의견이 블로그와 지식인을 통해 소통하고 있어 해당 채널에 대한 데이터가 일정 부분 나타남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월별 정보량

**월별 정보량** : 정보량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 일자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설명함

- 학교부적응 청소년 관련 월별 정보량을 보면 폭력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데이터 량을 보여줌
- 왕따는 데이터 중 특징적인 것은 2017년 2월 '1일 왕따 교육'을 진행한 교사 논란으로 인하여 증가했으며, 폭력의 경우 2017년 3월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교육 및 교육청 캠페인의 진행이 보도되면서 정보량이 증가하였음
- 또래의 경우 2017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의 또래상담활동 시행이나 신학기 학교들의 또래활동 진행 등으로 인하여 정보량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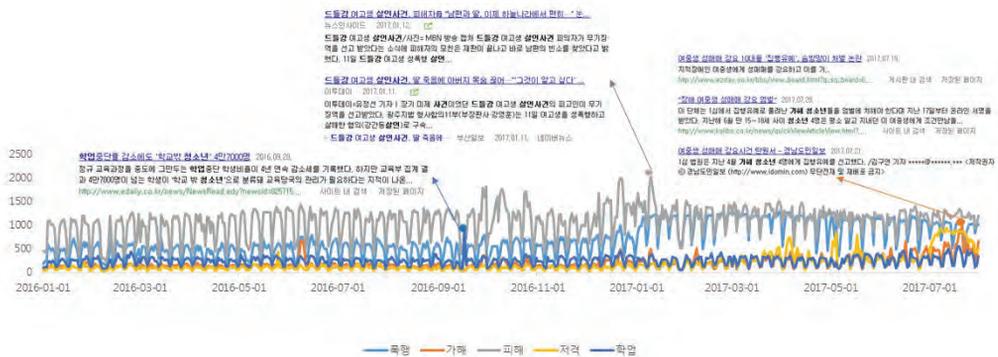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월별 정보량

**월별 정보량** : 정보량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 일자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설명함

- 학교부적응 청소년 관련 월별 정보량을 보면 폭행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크게 증가함
- 학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데이터량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청소년 학업중단 감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슈화 되었음. 피해의 경우 언론에서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과 같은 청소년 피해 사례가 보도되면서 지속적으로 높은 데이터량을 보임. 가해의 경우 2017년 7월 장애인 여중생 성매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문제 등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이슈가 계속 언급됨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전체 데이터에서 상위 키워드 100개를 추출

- 전체 데이터에서 상위 빈도 키워드를 살펴보면 공감, 보호, 교육, 정책 등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이 상위어 나타남
- 또한 폭력, 폭행 등으로 인한 범죄, 사고,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중요한 상황으로 나타남
- 또한 또래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범죄로 인한 경찰, 법 등 공권력에 대한 해결이 주로 언급되고 있음

청소년	969,815	소개	98,756	심리	57,076	사고	44,984	시설	38,085
학교	313,278	문화	97,060	범죄	56,585	가능	44,772	현장	37,742
폭력	302,174	제공	78,596	프로그램	56,345	시작	44,010	가해자	37,705
정보	299,244	경찰	78,235	발생	53,422	법	43,885	추진	36,751
피해	240,445	복지	77,549	정부	52,247	가정	43,883	환경	36,630
공감	215,555	피해자	77,093	진행	52,144	조사	43,512	모집	35,922
보호	213,170	안전	75,415	공개	52,013	사람	43,057	꿈	35,759
교육	197,302	문제	75,317	국민	51,444	성폭행	42,801	인터넷	35,318
정책	180,963	활동	71,629	친구	48,919	관리	42,637	도시	35,269
방침	163,385	시간	70,322	왕따	48,050	자신	42,455	정신	34,784
폭행	151,181	거부	69,246	신고	47,944	이상	42,349	저격	34,539
취급	144,740	사건	68,003	영화	47,380	혈액	42,097	가정폭력	33,392
지원	144,296	뜨레	67,560	미디어	47,296	장예	42,037	규속	32,553
예방	143,647	운영	67,528	치료	47,064	고중	41,493	교사	31,476
상당	132,404	방송	60,006	보장	47,040	과정	41,231	개인	31,378
사회	130,975	실시	59,434	경찰서	46,898	시민	41,071	논란	31,006
지역	120,931	청소년	58,827	부모	46,403	체험	40,608	절화	29,667
여성	114,744	생활	58,724	성폭력	46,194	방법	40,545	학생	27,847
학생	109,365	가족	58,281	전국	45,734	전문	40,166	비밀	27,641
학업	103,076	사람	57,338	위원회	45,142	병원	38,956	캐릭터	27,4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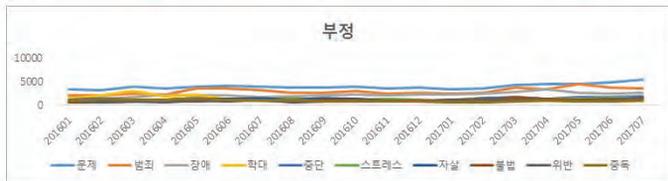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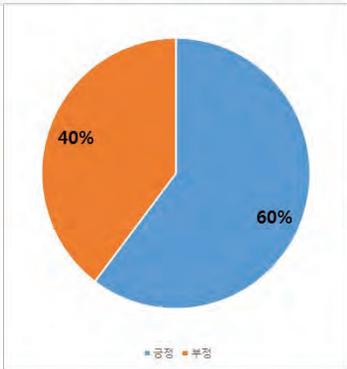




## 2) 학교 부적응 청소년: 정서 분석

**정서 분석** : 긍정, 부정 키워드의 비중과 각각의 키워드의 월별 빈도와 특성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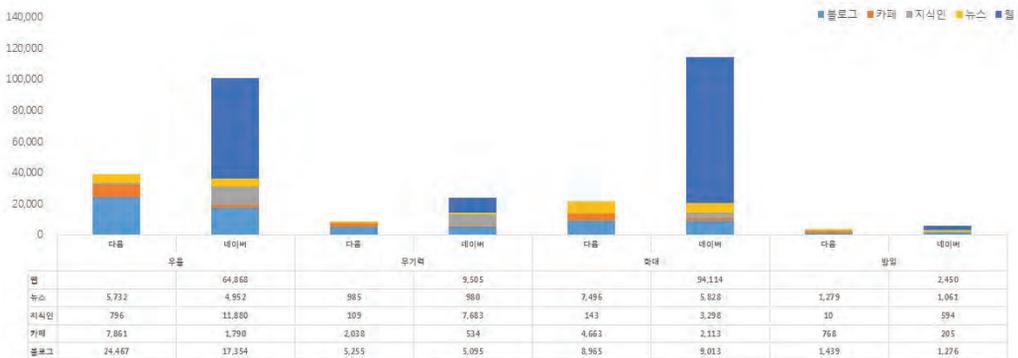
- 정서 분석을 한 결과, 부정보다 긍정이 60%의 비중을 차지함
- 긍정 키워드 중 공감의 키워드가 2016년 12월부터 급격히 높은 데이터량을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과의 공감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다수 사용되면서 증가한 것임. 부정어로는 중독, 자살,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 관련 정보가 증가하면서 해당 키워드의 빈도도 함께 상승하는 것임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채널별 데이터량

**채널별 데이터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우울, 무기력 청소년 관련 채널별 데이터량을 보면 우울과 무기력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울이나 무기력보단 학대에 관련된 데이터가 높게 나타남
- 우울의 경우 지식인의 데이터가 높는데 청소년 자살 문제에 대한 질문과 자살에 대한 고민 등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임
- 학대의 경우 네이버 웹의 데이터량이 많은데, 청소년 학대 문제에 대한 보고서나 웹 문서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임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울, 무기력 청소년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100개를 추출하고 이를 설명함

- 우울, 무기력 청소년 관련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청소년 문제의 결과로써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심리치료나 의료지원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술치료, 스트레스 해소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반면 일베저장소나 게시물의 경우 청소년들의 고충이나 심정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보임

청소년	321,250	의료	32,610	사건	17,884	범죄	14,361	환자	11,256
자살	173,305	문제	32,018	생각	17,853	질화	14,287	살해	11,164
공감	95,799	여성	31,851	사랑	17,020	조사	14,257	결과	11,078
학대	83,368	사람	27,098	전문	16,901	관리	14,024	검사	10,988
보호	71,396	장래	26,533	사망	16,805	마음	13,927	집	10,762
교육	65,448	부모	25,544	경찰	16,772	진행	13,896	시도	10,705
청책	62,128	치유	25,372	국민	16,712	인터넷	13,357	위험	10,398
상담	60,919	폭력	25,083	생활	16,526	자유	13,294	사고	10,317
방침	59,312	가족	23,933	보장	16,500	활동	13,283	고중	10,116
예방	57,074	방	23,767	안전	16,037	스트레스	12,940	희망	9,943
취급	54,846	시대	23,296	자신	15,993	규약	12,864	게임	9,852
우울증	51,862	생명	23,252	이상	15,607	발생	12,860	관심	9,650
사회	46,705	말	21,004	성인	15,236	기관	12,608	미래	9,632
학교	46,611	병원	20,802	거부	15,146	이유	11,811	온라인	8,780
센터	44,291	문화	20,784	무기력	15,101	자녀	11,567	관계	8,608
건강	44,071	학생	20,624	행복	14,917	친구	11,546	게시물	8,407
임리	37,349	과정	19,505	필요	14,838	중독	11,457	일베저장소	7,985
정신	34,337	신고	19,241	불안	14,812	여자	11,432	꿈	7,958
지원	33,571	처리	18,822	법	14,541	행동	11,412	사이트	7,956
복지	32,852	가정	17,953	미술	14,414	원인	11,352	위기	7,318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 우울, 무기력 청소년의 세부 키워드 빈도를 보면, 우울의 경우 심리, 정신, 불안, 스트레스 등 청소년 우울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남
- 방임이나 은둔형의 경우, 부모나 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소홀히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은둔생활을 하는 폐쇄적 외톨이로 이어지는 부분이 강조됨

방임	우울	은둔형	
청소년	7,470	청소년	3,214
아동	7,238	우울	39,617
방임	5,961	우울증	38,322
학대	3,943	상담	23,457
복지	2,227	심리	14,580
사회	2,169	정신	14,068
부모	2,079	강제	13,095
가정	1,930	치료	12,993
보호	1,808	센터	12,209
아이	1,652	공감	11,411
학교	1,517	불안	11,392
교육	1,433	자살	10,496
지원	1,406	문제	9,548
센터	1,163	사회	9,101
문제	1,053	학교	8,068
폭력	990	스트레스	7,703
상담	982	교육	7,532
가족	913	부모	7,513
유기	771	보호	7,224
예방	745	방침	6,924
여성	676	여성	6,669
위기	672	과몰	6,615
가출	649	장학	6,583
학생	629	진화	6,454
신고	577	예방	5,766
가정폭력	540	중독	5,435
승거	533	방법	5,406
양육	528	승거	5,368
정신	473	중상	5,293
근심	427	지원	4,954
		심리	4,954
		리카르도리	3,990
		신리	1,851
		신	1,748
		가족	1,668
		게임	1,621
		부모	1,443
		유명	1,338
		인디	1,327
		친구	1,133
		비참	1,125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의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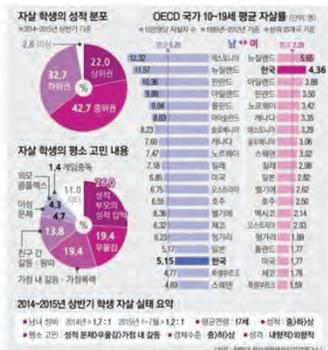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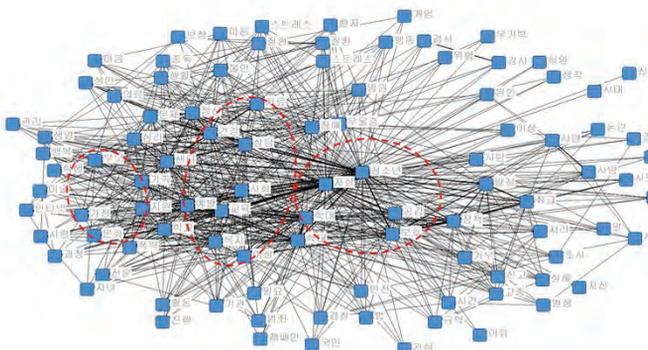
- 자살의 경우 우울 무기력한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학교의 노력이나 대책이 상위에 나타남
- 학대의 경우 주로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히키코모리의 경우 일베저장소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자살	학대	히키코모리
자살	학대	히키코모리
159,578	72,189	1,432
청소년	아동	청소년
143,198	69,653	1,317
정착	청소년	정착
40,852	69,015	645
보르	교육	방침
40,782	25,036	620
예방	중감	보르
29,568	22,008	617
교육	예방	개인
29,483	20,389	560
학교	보르	사람
19,618	19,085	441
상담	복지	일본
17,974	16,977	414
사회	학교	생각
17,373	15,669	331
센터	학교	인터넷
16,868	13,686	321
생명	여성	게시물
16,457	13,201	254
정신	자원	여자
15,164	12,452	253
지남	센터	필리핀자살
13,894	12,047	248
사랑	정책	사이트
12,768	11,809	230
문제	부모	오픈
12,627	9,133	230
실리	범죄	집
12,411	9,017	219
학성	폭력	문제
10,375	8,477	203
신고	상담	사회
10,214	8,217	197
폭력	심리	상담
9,869	7,313	167
우울증	가정	오픈
9,820	7,286	167
복지	경찰	게임
8,963	7,236	160
전문	사건	친구
8,929	7,123	140
가족	문제	생활
8,791	6,638	126
중보	신고	학교
8,572	6,200	119
생각	안전	이웃가
8,557	5,905	108
사건	법	사건
8,518	5,733	102
자유	장애	고민
8,006	5,505	79
안전	가정폭력	가족
7,831	5,134	76
미충	교사	연성
7,445	4,857	72
상해	연료	중식
7,444	4,469	71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 상위 빈도 단어 간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맥락을 분석하는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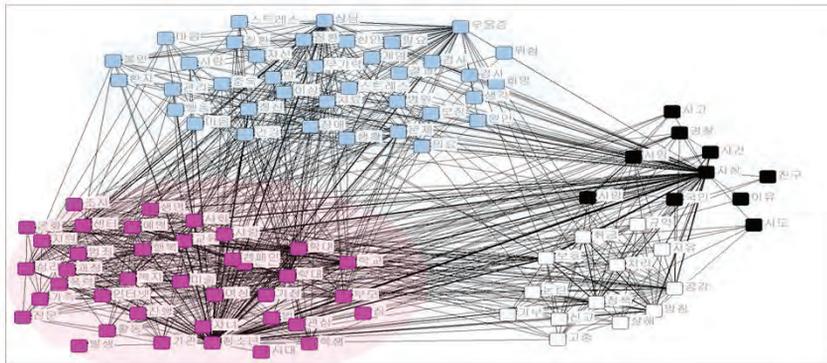
- 네트워크 분석 결과, 우울증, 자살, 학대, 청소년 등이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 되어있고, 가정, 가족, 부모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걱정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학교, 정부가 상담,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복지 정책과 연결하여 해결하려는 점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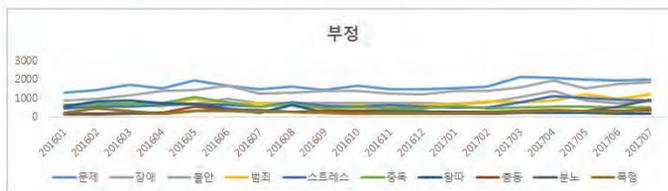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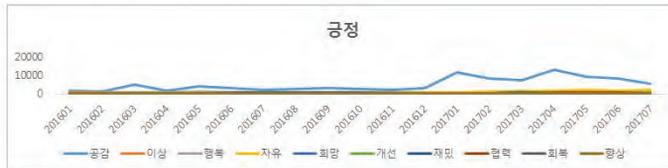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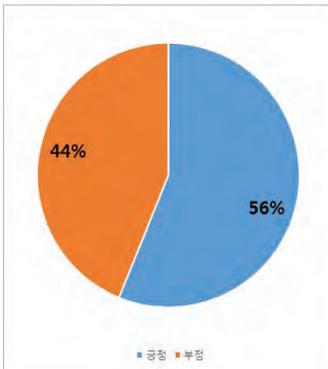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CONCOR 분석

- CONCOR 분석** : 단어 간 상관관계에 따른 클러스터링하여 유사한 단어로 묶음
- 네트워크 클러스터링한 결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의료 프로그램이 그룹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학대 및 폭력 등의 문제에 대한 심리 치료 및 부모, 학교 등의 예방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그룹으로 나타남. 그 외 사회 전반의 자살 사고 등은 분리되어 나타남
  - 즉 우울, 무기력에 대한 질병으로 인식과 복지 자원의 예방 및 지원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 3) 우울, 무기력 청소년: 정서 분석

- 정서 분석** : 긍정, 부정 키워드의 비중과 각각의 키워드의 월별 빈도와 특성을 설명함
- 정서 분석을 한 결과, 다른 키워드에 비하여 긍부정 비율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
  - 긍정 키워드는 희망이나 사랑, 행복 등의 키워드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당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 높게 나타난 것임. 부정어로는 장애, 불안, 범죄 등의 요소가 많아 해당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음







## 4) 청소년 게임중독: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게임중독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100개를 추출하고 이를 설명함

- 청소년 게임중독 관련 주요키워드를 보면 모바일 게임이나 스마트폰, 아프리카 등 유튜브 환경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나타남
- 정책이나 방침, 예방, 섯다운 등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활동이 나타나며, 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가정, 센터 등이 강조됨.
- 하지만 심각한 게임중독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폭력, 도박, 가출 등의 문제 등은 상위에 나타나지 않았음

게임	69,818	학교	5,220	아프리카	2,173	현피	1,527	스트레스	1,059
청소년	67,409	심리	5,213	우울증	2,123	온라인	1,473	가정	1,010
게시판	39,027	방송	5,011	이유	2,097	장애	1,460	진행	982
정보	35,083	센터	4,603	가족	2,076	섯다운	1,458	논란	975
정책	28,749	문제	4,376	추천	2,064	생활	1,456	제한	972
보호	28,227	예방	4,039	운영	2,056	위험	1,431	인기	949
중독	27,374	성인	3,633	정신	1,961	돈	1,381	진료	948
방침	26,976	교육	3,595	법	1,941	넥슨	1,355	단속	947
취급	25,473	부모	3,366	일베저장소	1,899	컴퓨터	1,326	관계	943
거부	22,295	시간	3,198	학생	1,865	실시	1,290	공부	941
상담	14,495	폭력	3,126	건강	1,864	삭제	1,279	불안	931
영상	13,778	재보	3,125	활동	1,829	필요	1,245	존	927
이용	12,148	방법	2,925	왕따	1,797	환경	1,233	캠페인	916
이야기	10,444	도박	2,711	사용	1,789	사이트	1,208	사이버	912
모바일게임	10,123	신고	2,688	자유	1,778	심리치료	1,175	동접	904
사회	9,460	생각	2,673	유해	1,772	사건	1,154	청소년이용	769
문화	8,665	대상	2,661	가능	1,677	등급	1,112	가출	768
인터넷	8,277	치료	2,593	친구	1,656	광고문	1,095	몰입	762
스마트폰	7,795	현질	2,549	처리	1,645	오버워치	1,082	컴퓨터게임	689
피시방	5,720	자녀	2,206	게시물	1,640	전문	1,075	대인기피	611

## 4) 청소년 게임중독: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 전반적으로 데이터 량이 가장 많은 게임현피의 경우 게임과 관련된 키워드보다 아프리카, 철구, 신태일, 일베 등 유해한 개인BJ 및 커뮤니티 키워드가 나타남
- 피시방의 경우 피시방이 단순히 게임만을 즐기 위한 장소가 아닌 청소년들의 유해 활동 업소가 되고 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단속의 키워드가 나타남

게임중독	게임+현질	게임+현피	피시방		
중독	26,702	게임	3,562	청소년	15,564
게임	26,284	정책	2,734	게시판	5,660
청소년	25,062	청소년	2,697	게임	4,006
상담	13,877	현질	2,507	보호	2,650
스마트폰	7,393	보통	1,834	정책	2,498
인터넷	7,044	이용	1,756	몰입	1,909
심리	5,055	자유	694	노래방	1,727
센터	3,939	신고	692	학교	1,597
문제	3,767	넥슨	681	시간	1,536
학교	3,547	추천	653	신고	1,391
예방	3,369	일베저장소	592	누락	1,276
교육	2,990	방	552	업소	1,051
부모	2,847	게시물	496	시설	1,043
폭력	2,610	넷마블	395	일베저장소	1,012
도박	2,483	인기	387	오버워치	950
저부	2,450	게임즈	383	알바	906
사회	2,138	리니지	274	단속	875
우울증	2,095	동접	261	황강	874
가족	1,788	유도	258	자유	745
장신	1,782	돈	223	친구	731
철구	1,727	블리자드	210	그룹	687
크로그린	1,497	유저	207	인터넷	672
학습	1,458	아이템	156	문화	658
방법	1,417	모바일	155	등록	655
섯다운	1,300	오락	150	일베	652
위험	1,285	사회	138	예방	652
장애	1,279	모바일게임	131	학생	629
법	1,241	스마트폰	128	회원	613
학습	1,187	온라인	110	넥슨	609
심리치료	1,112	접속자	108	캠페인	543
				게시물	227
				전문	1,075
				현피	1,527
				온라인	1,473
				장애	1,460
				섯다운	1,458
				생활	1,456
				위험	1,431
				돈	1,381
				넥슨	1,355
				컴퓨터	1,326
				실시	1,290
				삭제	1,279
				필요	1,245
				환경	1,233
				사이트	1,208
				심리치료	1,175
				사건	1,154
				등급	1,112
				광고문	1,095
				오버워치	1,082
				전문	1,075
				스트레스	1,059
				가정	1,010
				진행	982
				논란	975
				제한	972
				인기	949
				진료	948
				단속	947
				관계	943
				공부	941
				불안	931
				존	927
				캠페인	916
				사이버	912
				동접	904
				청소년이용	769
				가출	768
				몰입	762
				컴퓨터게임	689
				대인기피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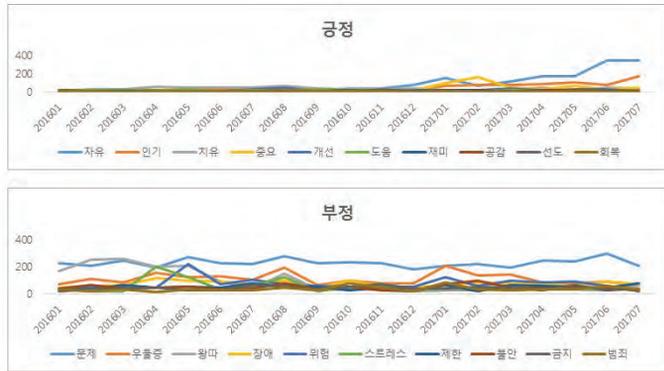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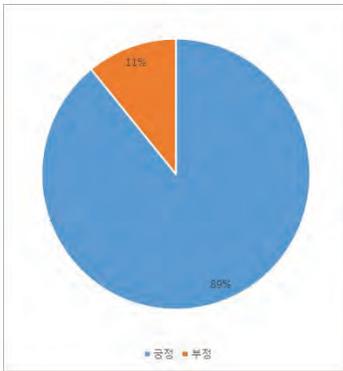




## 4) 청소년 게임중독: 정서 분석

**정서 분석** : 긍정, 부정 키워드의 비중과 각각의 키워드의 월별 빈도와 특성을 설명함

- 정서 분석을 한 결과, 부정 키워드가 89%를 차지하며, 긍정 키워드에 비하여 매우 높은 빈도를 보임
- 긍정 키워드 중 자유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그 외 인기, 공감, 재미 등의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 표현으로 인한 것임
- 부정어로는 문제, 왕따,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높아 부정어가 높게 나타난 것임



## 5) 청소년 비행: 채널별 데이터 량

**채널별 데이터 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청소년 비행 관련 채널별 데이터 량을 보면 전반적으로 네이버 웹에 대한 데이터 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오토바이의 경우 웹의 데이터보다 블로그의 데이터가 높게 집계되는데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의 임금체불 문제와 보험 관련된 데이터가 많아서임
- 성문제의 경우 다른 키워드와 달리 네이버의 데이터보다 다음의 데이터가 높게 나타난 것은 특징적임





## 5) 청소년 비행: 채널별 데이터 량

**채널별 데이터 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네이버 웹의 데이터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인 절도의 경우 증가하는 청소년 절도 문제의 사례와 연구자료 등의 자료가 많아시임
- 도박의 경우 블로그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청소년 도박을 해결하려는 도박 예방 포럼 홍보 데이터로 인한 것임
- 랜덤의 경우에는 낯선 사람과의 랜덤 채팅이 청소년 성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언급이 많아시임



## 5) 청소년 비행: 채널별 데이터 량

**채널별 데이터 량** : 네이버, 다음의 채널의 각각의 데이터 량을 비교하고 데이터 특성을 설명함

- 가솔의 경우 비교적 지식인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가솔 청소년 혹은 가솔을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네이버 지식인에 많이 질문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임
- 보호관찰의 경우 뉴스의 데이터가 높는데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는 뉴스 데이터가 많이 집계됨
- 분류심사원의 경우 블로그 데이터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 현황과 대책에 관련된 분류심사원의 역할이 블로그에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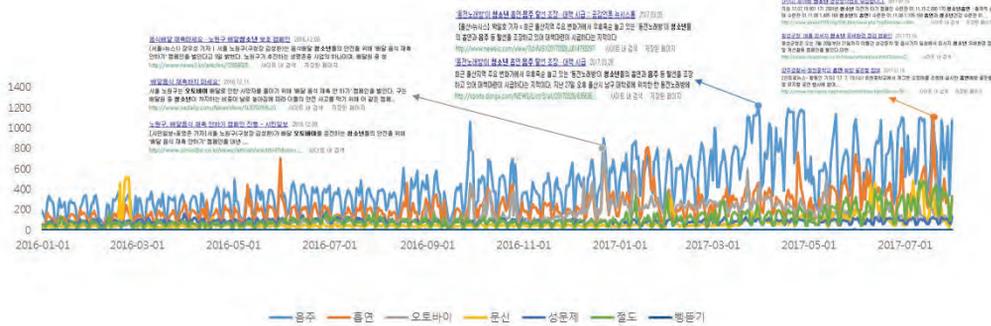


## 5) 청소년 비행: 월별 정보량

### 월별 정보량

:정보량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 일자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설명함

- 청소년 비행관련 월별 정보량을 보면 성문제와 흡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데이터량이 증가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됨
- 오토바이의 경우 2017년 7월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 등 청소년들의 배달 운전 문제로 증가한 것이며, 음주의 경우 2017년 3월 청소년 음주달성 장소로 코인노래방이 지적되면서 데이터가 증가함
- 흡연의 경우 2017년 7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흡연에 대하여 전국적인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높은 정보량을 보였음



## 5) 청소년 비행: 월별 정보량

### 월별 정보량

:정보량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높게 집계된 일자에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를 설명함

- 청소년 비행관련 월별 정보량을 보면 도박과 관련된 데이터가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으며, 분류심사원 데이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랜덤의 경우 2016년 5월에 가장 높은 데이터가 집계되었고 랜덤 채팅 등 인터넷상에서 성상품화 되어가는 여성청소년의 문제로 인한 것임
- 도박의 경우 2017년 3월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문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인한 것이며, 가출의 경우 2017년 4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과 동거한 40대 구족사건 등 위험에 노출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면서 정보량이 증가함





## 5) 청소년 비행: 주요 키워드

**주요 키워드** :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키워드 중 상위 100개를 추출하고 이를 설명함

- 청소년 비행 관련 주요키워드를 보면 예방,상담,안전등의 긍정적 키워드보단 담배,술,성매매,폭행등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문제적 키워드가 주로 나타남
- 청소년 비행이 범죄로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단속,징역,감거,처벌등 사법적인 키워드가 자주 나타남
-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중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센터나 교사키워드는 상위에 나타나지 않음

청소년	544,223	문화	31,289	전국	17,890	정신	14,486	징역	10,827
보호	163,953	처리	31,133	부모	17,806	가정	14,423	기관	10,827
정책	144,966	대상	28,963	사이트	17,667	친구	14,133	성장	10,768
몰입	116,176	생활	26,557	적발	17,543	시설	13,754	행복	10,713
음주	83,602	범죄	25,550	성인	17,423	그룹	13,743	손해	10,681
오토바이	67,448	혐의	24,929	고충	17,245	불법	13,728	원인	10,662
음주운전	64,314	질환	24,594	문신	16,928	세상	13,441	피해	10,461
교육	62,964	활동	23,877	게임	16,882	행위	12,931	진단	10,417
문제	59,148	담배	23,643	상품	16,799	보호관찰	12,820	자녀	10,406
예방	55,543	가족	22,924	상각	16,693	성매매	12,483	미래	10,355
건강	54,483	학생	22,850	집	16,610	희망	12,379	면허	9,992
가출	48,111	안전	22,659	랜덤	16,136	논란	12,342	해결	9,339
도박	46,994	폭력	19,894	중독	16,135	비행	11,879	스트레스	9,219
학교	44,530	공개	19,652	인터넷	16,113	캠페인	11,849	채팅	8,802
사회	43,159	발생	19,388	질병	16,066	위반	11,639	공원	8,802
사고	37,922	구속	19,292	현장	16,043	증가	11,578	감거	8,778
상담	35,957	절도	19,071	징매	15,812	단속	11,276	유해	8,547
경찰	34,804	조사	18,510	위험	15,593	이야기	11,243	자살	7,899
금연	34,340	정부	18,328	술	15,469	관심	11,229	치면	7,760
자유	32,784	경찰서	17,936	신고	15,271	폭행	11,002	성폭력	7,141

## 5) 청소년 비행: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의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 전반적으로 데이터량이 가장 많은 도박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쉽게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된 데이터가 자주 나타남
- 갈취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남. 랜덤의 경우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실태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남

갈취	도박	랜덤	무기력				
청소년	6,436	도박	44,296	랜덤	15,705	청소년	16,649
갈취	6,313	청소년	42,819	청소년	14,301	무기력	13,951
폭력	2,970	과사	19,907	채팅	7,657	상담	4,537
학교	2,507	법	17,550	정책	7,063	우울증	2,953
금주	1,992	상담	7,682	보호	6,369	학교	2,884
경찰	1,297	중독	7,475	게시판	5,466	심리	2,124
보조	1,279	보호	7,411	검색	2,584	사회	1,760
돈	1,255	불법	6,995	방재팀	2,562	치료	1,731
폭행	1,042	교육	6,504	자유	1,991	교육	1,723
범죄	1,023	게임	6,443	게임	1,975	문제	1,720
사회	904	사이트	5,652	사건	1,860	센터	1,671
성매매	874	센터	5,554	채팅	1,151	폭력	1,600
형사	862	문제	5,295	성매매	1,100	중상	1,551
감거	857	인터넷	4,890	사이트	965	감정	1,507
징역	830	신고	4,333	신고	958	징매	1,414
여성	826	소주중독	4,148	로라인	818	우울	1,382
혐의	738	예방	3,705	나이	803	장산	1,324
환상	705	제도	3,441	여자	794	성감	1,249
구속	687	사회	3,333	통첩	762	왕따	1,246
예방	653	돈	2,944	번호	757	부모	1,239
사건	574	구속	2,820	여성	716	무기력중	1,204
문제	569	관리	2,744	물류	716	살	1,172
불법	561	혐의	2,619	공개	666	부정	1,170
피해	527	경찰	2,519	서비스	659	대운	1,108
수사	460	학교	2,378	스마트폰	563	보조	1,051
조폭	427	법	2,188	학교	504	징역	998
신고	407	생활	2,066	돈	494	학살	996
안전	399	신고	1,927	가족	490	중독	925
가출	383	스마트폰	1,893	증상	486	진료	904
정부	379	감거	1,812	성인	461	가출	899



## 5) 청소년 비행: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 보호관찰의 경우 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재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등의 키워드가 자주 나타남
- 문신의 경우 제한 없이 온몸에 행해지고 있는 행태와 여성 청소년들의 문신 문화의 확산 그리고 문신을 일베 같은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가 나타남

문신		보호관찰		분류심사원	
문신	15,414	청소년	20,114	청소년	1,193
청소년	13,696	보호관찰	10,791	소년	1,097
보호	5,599	보호	8,221	심사원	1,000
일베	1,948	센터	5,768	분류	970
온몸	1,936	지원	5,570	보호	554
여지	1,349	관찰	5,068	시설	445
논란	1,252	교육	4,021	센터	420
신고	1,241	사회	3,297	소년원	346
거부	1,232	학교	2,787	비행	311
경찰	1,186	보호관찰소	2,720	보호관찰	306
사회	1,135	범죄	2,316	지원	295
영화	1,088	프로그램	2,285	교육	260
준	1,086	여방	2,171	예방	233
학교	1,066	복지	1,978	보호	224
남자	962	반쯤	1,909	학교	220
그름	909	치료	1,758	기관	216
모습	878	상담	1,656	법무부	213
관리	871	여성	1,461	보호관	172
문	866	광영	1,341	준법	164
범죄	847	유형	1,308	범죄	157
상한신	841	유형	1,303	복지	145
혐의	802	학생	1,196	위탁	142
재가	799	가족	1,119	위반	141
가족	769	시설	1,093	유지	130
일베저장소	727	관리	1,086	사회	130
안전	722	경찰	1,026	대상	116
학생	706	소년원	1,024	법	109
시골	697	문제	1,021	상담	106
게시물	696	안전	997	사건	96
사건	637	정황	989	폭력	94

## 5) 청소년 비행: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 오토바이의 경우 오토바이 배달 청소년들의 교통사고와 청소년 무면허 행소나 사건의 증가와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남
- 성문제의 경우 예방, 보호, 치료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 키워드와 더불어 성매매, 여성, 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가 나타남

뽕뜰기		성문제		오토바이	
청소년	137	청소년	35,301	포함	159,377
장적	46	문제	32,207	오토바이	65,477
보호	37	성	9,677	청소년	58,700
게임	30	사회	8,030	학교	15,266
신고	24	교육	7,190	성명	8,014
일베저장소	24	상담	5,679	문건자	8,003
게시물	23	여성	5,598	순건	4,158
스마트폰	23	학교	5,187	보호	3,347
가족	19	폭력	3,992	장학	3,040
학교	15	성폭력	3,977	상담	2,737
친구	14	범죄	3,302	교통사고	2,660
상황	14	매매	3,149	부도	2,506
법	13	성매매	2,768	통원	2,489
폭력	13	여방	2,760	가족	2,403
강제	7	분류	2,529	배달	2,385
문란인	7	장애	2,413	사립	2,300
범죄	7	가족	2,412	만화	2,116
부모	7	복지	2,381	경찰	2,116
범죄	7	학생	2,163	위협	2,110
문제	7	센터	2,097	안전	2,101
행	6	부모	2,070	알성	1,881
비행	6	인물	1,978	이후자	1,526
업선	6	성리	1,964	교통	1,462
폭행	6	성인	1,962	학교	1,445
사이버	6	치료	1,953	친구	1,398
가족	6	법	1,924	혐의	1,331
황다	6	지원	1,924	법	1,320
대상	5	가정	1,903	차로비	1,265
서훈	5	사건	1,896	윤정	1,249
문	5	발생	1,889	법	1,161



## 5) 청소년 비행: 세부 키워드 빈도

**세부 키워드 빈도** : 세부 카테고리의 상위 3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의 특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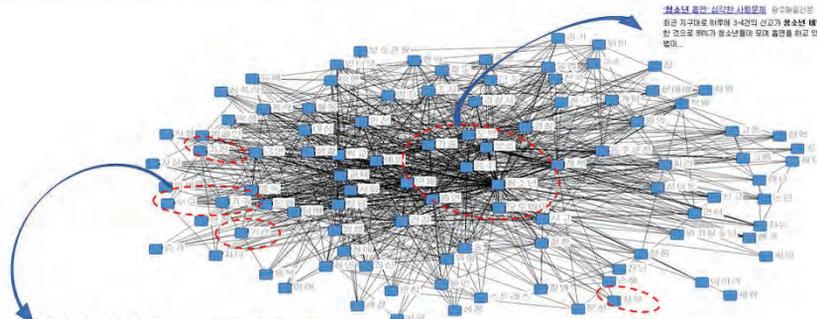
- 흡연의 경우 금연, 교육, 건강, 예방 등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 키워드가 나타남
- 음주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교 밖 음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와 이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성에 대한 키워드가 나타남

음주		절도		흡연	
청소년	28,432	청소년	20,670	흡연	93,719
음주운전	17,444	절도	16,113	청소년	88,302
음주	14,474	범죄	6,127	금연	29,941
중독	10,671	경찰	5,623	예방	26,552
학벌	4,067	정적	5,116	교육	22,454
경찰	3,779	구속	4,544	금강	18,703
흡연	3,519	형의	4,199	음주	16,283
교육	2,804	절도범	4,102	담배	16,079
예방	2,483	사건	3,708	암	13,784
사회	2,258	검거	2,875	보통	11,648
안전	2,210	매방	2,780	학교	11,318
형의	2,009	자랑	2,726	여성	6,936
맥주	2,001	학교	2,625	지음	6,566
센터	1,997	교육	2,609	학생	6,516
정부	1,893	상습	2,497	이르	6,469
민간	1,779	중화	2,470	대마초	6,097
구속	1,672	인건	2,460	사회	6,077
술	1,626	특수학교	2,312	연락	5,296
학교	1,583	복합	2,079	지르	5,121
단속	1,547	입건	1,994	질황	4,981
논란	1,538	정부	1,951	문제	4,943
발상	1,516	발상	1,918	창제인	4,802
문제	1,472	폭력	1,836	흡연자	4,753
교통사고	1,471	조사	1,696	금리	4,669
관리	1,451	가출	1,625	드로그면	4,524
가족	1,418	학생	1,570	법	4,517
법	1,346	문제	1,568	문화	4,412
학생	1,291	비정	1,537	상당	4,397
위험	1,255	진구	1,534	위험	4,300
		죄의	1,426	회경	4,073

## 5) 청소년 비행: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 : 상위 빈도 단어 간 동시출현 빈도를 분석하여 맥락을 분석하는데 활용

- 네트워크 분석 결과, 중독, 게임, 청소년등과 같은 주요 키워드가 중심으로 방청, 보호, 정책 등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력 및 가출, 도박, 범죄, 문제, 사고 등 청소년 비행 문제의 결과가 중요한 위치에 나타남
-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해결의 주도자인 부모, 기관, 정부가 외곽에 위치하며, 학교에서 이들을 도와줄 교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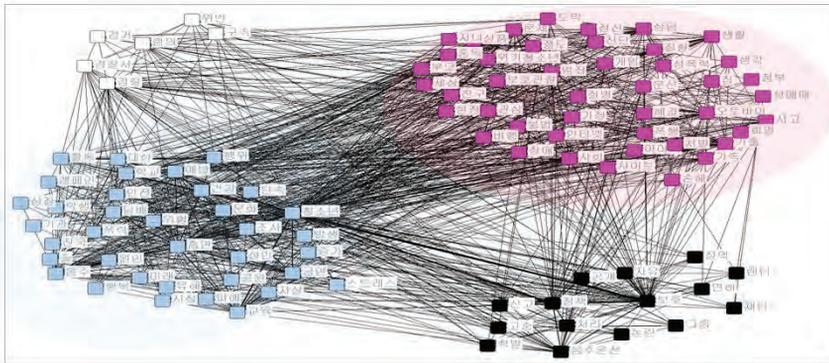
학교도 경찰도 관리주체 아닌 '유형' 청소년 비행 사건지에 문제  
 2020.08.19  
 그러나 학교의 물타라를 벗어난 이들이 각종 비행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교육당국이나 경찰라...  
 경찰 역시 유해 학생을 학교비행소년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고심도 깊다. 자제 등으로 인...  
 원...



## 5) 청소년 비행: CONCOR 분석

**CONCOR 분석** : 단어 간 상관관계에 따른 클러스터링하여 유사한 단어로 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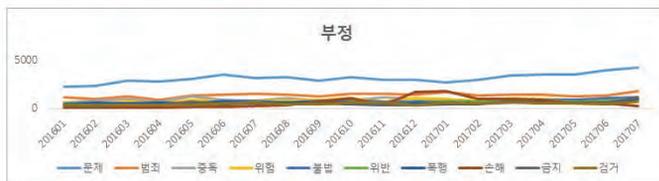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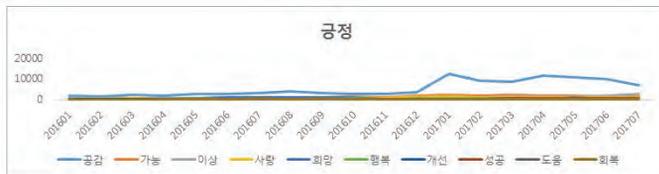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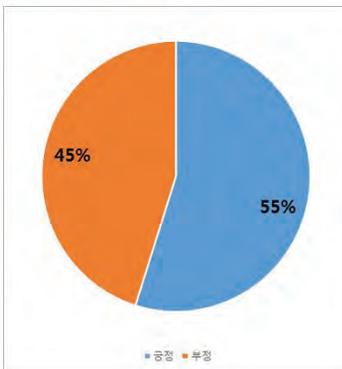
- 네트워크 분석의 클러스터링한 결과 성폭력, 폭행, 오토바이, 성매매 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그룹과 폭력, 담배, 음주, 자살 등의 유해 요소에 대한 청소년 예방 캠페인 등이 그룹으로 나타남
- 또한 두 그룹 간의 연결이 강하게 나타나 정부의 문제 해결 정책과 학교 캠페인 부분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 5) 청소년 비행: 정서 분석

**정서 분석** : 긍정, 부정 키워드의 비중과 각각의 키워드의 월별 빈도와 특성을 설명함

- 정서 분석을 한 결과, 부정 키워드가 55%를 차지하며, 금/부정 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
- 긍정 키워드 중 공감, 희망, 개선, 회복 등 청소년 비행 문제의 해결을 통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았음
- 부정 키워드의 경우 문제 인식과 범죄, 위반 등의 범죄 관련 키워드가 다수 나타남에 따라 부정어 부분이 높게 나타남





Opinion LIVE

## 4. 결론

### 결론

- 위기청소년의 전반적인 평가는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음
- 특히 관련된 정보는 블로그를 통하여 공유하고 있었으며, 뉴스를 통한 문제점 지적도 많았음
-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부나 지원센터의 상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다수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복지 영역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 특히 위기청소년에서는 폭력, 자살, 게임, 흡연 등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 연도별로 보면 2015년부터 성폭력, 성매매에 관련된 이슈가 상위에 나타났으며,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었음. 해결방안 중 또래상담이나 인권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나타남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유예와 종퇴 관련 데이터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자퇴와 관련하여 지식인을 통한 문의가 많은 것이 특징임
- 폭력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학교와 유관 센터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으며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방송, 드라마, 영화로 인한 영향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학교 부적응의 경우 폭력, 폭행, 피해 등의 키워드가 높은 데이터 량을 보여, 청소년의 폭력 노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남.
- 또한 청소년과 성인 간의 폭력(성폭력, 폭력 가담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통한 해결 보다 법적 해결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임



## 결론

- 우울, 무기력 청소년의 경우 주로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자살과 관련한 고민이 높은 데이터량을 보였음
  - 이로 인하여 심리치료나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다수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경우 일베나 기타 커뮤니티를 통해 우울과 무기력을 해소 혹은 받게 되는 역순환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우울에 대한 질병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전문적인 병원 치료를 강조하고 있었음
- 
- 게임 중독의 경우 현피와 관련해서는 웹의 공간에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로 게임 중독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과 학생들 간의 게임 정보 공유 공간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음
  - 섯다운제나 청소년 이용 제한 등의 제한 대책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모바일게임이나 피시방에서 청소년 게임을 즐기기 위한 정보 공유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규제와 관심이 함께 나타남
- 
- 청소년 비행의 경우 음주, 절도 등의 문제와 성폭력, 성매매 문제 및 흡연 등은 지속적을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와 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들의 정책적 활동이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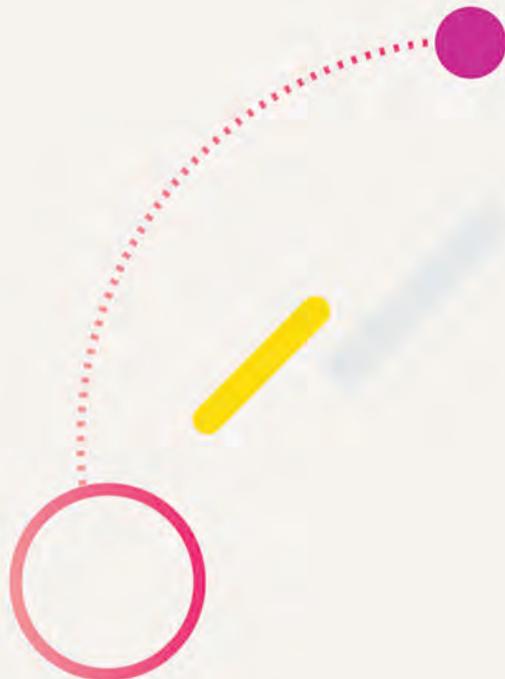




CHAPTER  
02

- 2017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정한 원탁 토론회

## 전문가 발제자료





---

01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김지선

---

02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의, 이해,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염병훈

---

03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언

윤철경



## 위기청소년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

김지선 청소년과 나란히

### 01

#### 빅 데이터를 활용한 토론에 대한 단상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실제로 오고 있는 것 같다.

드론과 인공지능, 빅 데이터와 딥 러닝, 사물인터넷 등이 이미 우리에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당장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필자가 기존에 참여한 토론회는 주로 국내외 자료 분석과 연구, 설문조사와 인터뷰, 현장 활동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여하면서도 늘 우리가 청소년의 이해와 욕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현재도 역시 그렇다.

빅 데이터 분석이 조금 더 청소년들의 이해와 욕구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길 바란다. 수잔 그린필드(2008)에 의하면 새로운 청소년은 분석적 사고보다는 상황 설명적이며, 성찰적이기보다는 반응적 언행이 증가하고, 문자언어보다는 비주얼자료로 소통한다고 한다. 이런 평가에 비추어 빅 데이터 분석은 현재 청소년의 정서와 감성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SNS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감정이나 생각, 고민과 스트레스를 있는 그대로 풀어놓는 광장이다. 그 속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발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야 할 것이다.

빅 데이터 분석 토론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은 첫째,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분석을 정교화 해야만 실제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빅 데이터 분석과 기존 연구방법을 융합한다면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좋겠다.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투명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윤리가 작동해야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다.

셋째, 일회적이고 이벤트성 데이터 분석이 아니어야 한다. 분석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계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위기청소년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 위기관리가 가능하려면 데이터 뱅크 같은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넷째,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데이터 혼란을 야기하는 빅브라더, 네트워크 블랙아웃 등도 우



려된다. 인간의 뇌처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증하는 데이터만 수집하고 나머지는 무시할 수도 있다. 이를 대체할 기술과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 02

### 빅 데이터 분석 들여다보기 그리고 다시 읽기

#### 1) 분석 방법과 분석 프레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들여다보니 새롭게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 데이터양 분석결과가 그동안 현장에서 찾은 키워드와 일치하는 경험도 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이나 CONCOR 분석을 통해 대안 모색도 가능하리라 본다. 정서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며 여전히 게임중독이나 비행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다만, 편집된 분석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주최 측이 이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긍정적 이미지를 구성해보고자 한 취지에 맞게 분석 프레임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제시한 프레임 자체가 현상중심, 부정적 키워드 중심이라는 것이다. 위기청소년의 권리, 기회, 성장, 변화, 진로, 자립, 극복 등의 키워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둘째, 위기청소년의 커다란 이슈는 살피볼 기회가 되었지만 위기청소년이 갖고 있는 현재적 고민과 어려움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대안은 구체적인 파악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셋째,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에 있어 상황적 위기와 행동적 위기의 구분도 필요하다.** 가정적·사회적·교육적 위기와 개인적·발달행동 위기는 다르다. 경제적, 가정적 결핍으로 인한 위기와 문제행동으로 인한 위기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 2) 가장 많은 데이터양= 청소년비행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자율 또는 보호적 개념을 놓고 볼 때, **위기청소년에 있어서는 자율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데이터양이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행동에 맞추어져 있다. 세계적으로도 청소년 범죄가 폭력화, 지능화, 집단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예를 들어 인천초등생 살해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이 촉발한 언론보도가 현재 위기청소년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미 청소년범죄, 성인범죄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만큼 청소년 비행과 성인의 연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모텔, 비디오방, 술집출입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 소년범의 80%가 결손가정 출신이며 보호자의 직업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 한다. 점차 성매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청소년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오토바이는 최근 비행 키워드이기보다는 배달 등의 청소년노동과 관련이 깊다. 점차 배달대행이나

대여 등의 사업화되는 경향도 있다.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이 유해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점차 음주나 문신문화가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 3) 학교밖 청소년이 되는 시기와 정보

학생들이 자퇴관련 정보는 주로 지식인을 통해 얻고 있으며 유예나 중퇴에 대한 데이터양은 학기 초인 4.5월에 집중되어 있다. 노원구의 2011년 학업중단예방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달 이내에 자퇴를 결심한 경우가 61%나 된다. 학교나 청소년기관을 통한 충분한 학업중단숙려제 정보제공이나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SNS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교육청이 학업중단청소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가 점차 확산되어 적용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은 앞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주요한 토대로 쓰일 수 있다.** 지식인에 청소년상담사가 상담 댓글을 올리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이 주로 진행되는 시기를 파악하여 상담 및 멘토링이 적극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또래에 의한 폭력과 왕따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교 부적응 청소년 데이터에서는 폭력, 왕따, 또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행의 경우 폭력, 범죄와 연결되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부키워드의 경우 여성청소년들이 일베나 가해자의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점점 성폭력, 가정폭력, 왕따 등이 민감하게 작용하며 법적 처벌이 강조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과 같이 점차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학교 학생간의 집단 폭행으로 학교 간 공동 폭대위가 자주 열리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SNS를 통한 사이버블링, 남학생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CONCOR분석에 있어 미디어를 통한 보도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소년법에 있어 '회복적 정의' 가치와 철학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서로의 절차에 의해 사건을 진행하기보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해자 또한 자발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회복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특히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 5)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 무기력

자살에 대한 데이터양이 높아 자살이슈에 관심이 높고, 학업스트레스나 가정폭력 등 학대로 인한 우울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로 일베저장소가 상위에 있다. 일베 안에 히키코모리 활동이나 관련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실 우울, 무기력 위기청 소년의 경우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자해나 분노조절이 안 되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점차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최근 청와대에 일베저장소 폐지청원이 4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사 이를 폐지한다고 해도 제2, 제3의 일베 출현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자극적이고 자유로우며, 친구관계를 이어가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없어지긴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의 정화와 결정 과정을 갖도록 청소년 참여의 장이 여러 곳에 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다양한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 6) 게임중독 해결방안, 셋 다운과 오버워치

게임중독과 피시방의 경우 블로그 데이터양이 높고 게임현피의 경우 네이버 웹문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유행게임이나 현피, 현질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데이터가 출렁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간의 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활동과 게임중독의 심각한 결과인 폭력, 도박, 가출 등은 대립하고 있다. 주요 키워드로 작용하지 않고 있지만 스포츠 토토나 도박 사이트 등에 몰입한 청소년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아프리카 TV의 BJ에게 매일 입금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일부 청소년의 꿈이 아프리카 TV의 BJ거나 '토사장'이기도 하다. 청소년 게임중독의 경우 데이터양보다는 소수라도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03

### 위기청소년 지원을

#### 위한 제안

### 1) 소년사법절차와 소년법 개정 논의보다 법교육과 절차 체계화

폭력적이고 잔인한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최근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소년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범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요 쟁점은 처벌 연령을 낮추고(12세 미만으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최고형량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소년범의 80%가 경제적, 가정적 결핍 상황에 있으며, 신체적 성숙과 도덕적 성숙의 불일치와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형사제재의 효과도 미지수이다.

현장에서 볼 때 몇 가지 제안은 첫째, 범법 행위로 경찰서에 여러 번 드나들지만 명확한 법교육도 처벌도 없다. **초기부터 강력한 교육과 세밀한 단계별 처벌방안(교육, 봉사, 상담, 변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사법절차가 너무 느리게 적용된다. 범죄를 저지른 뒤 최소한 2~3달이 지난 뒤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셋째, 언급한 대로 **'회복적 정의'과정을 도입하여 피해자들의 인권개선 및 가해자들의 성찰과 회복을 도와야 한다.** 넷째, **소년범에 대한 법교육 및 사후관리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2) 성인연계 위기, 지역사회 유해환경 처벌 및 개선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되면서 한동안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시경에 전담반이 생기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나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점차 성매매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장소도 다양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최근 들어 손쉽게 채팅앱 등을 통한 조건만남과 조건사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모텔이나 유흥업소 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디오판, 코인노래방 등이 음주, 흡연, 성폭력의 장소화되고 있다.

오후 10시 제한 시간을 넘겨 PC방을 드나들고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심지어 본드를 판매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배달대행 업체는 번성하고 부당, 불법노동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보다 성인들의 '청소년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미 성장한 청소년을 성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청소년에게 안전한 사회적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쉽게 성인사회에 편입되거나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과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 3) 우울, 무기력한 청소년들과의 소통 방안 모색

우울, 무기력한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SNS를 통해서라도 이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과 사이버따돌림 등에 대한 빅 데이터 분석은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향후 도움이 될 것 같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2)은 SNS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갖는 우울한 감정이나 스트레스, 고민을 들을 수 있고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SNS 상에서 나타나는 자살에 대한 감정표현이나 심리적 위기 행태들을 분석하게 되면 **위험징후와 유의미한 패턴을 감지하여 자살을 예방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사회 우울, 무기력에 이어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청소년의 규모가 파악되어야 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결손가정, 경제적 빈곤층 은둔형 외톨이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 4) '위기'란 개념에 앞서 청소년 권리 옹호와 참여가 먼저다

청소년의 빠른 성장을 이유로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다.

**청소년 스스로 그들을 위한 정책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토론 과정을 거쳐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과정이 곧 민주시민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학업을 중단하면 교육도 중단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는 학교 안과 밖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과감하게 학업중단을 결심해도 학교밖 인프라는 결코 교육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비행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과감하게 차단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이 안전한 모험과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간디는 실수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고 한다.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어른과 지역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은 '노동 없는 미래' 즉 탈고용화 사회를 예고하고 있다.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동이 인간의 존재와 가치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유발 하라리(2016)는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되었을 때 전혀 쓸모없을 확률이 크다. 어쩌면 수업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아이들이 나이 들었을 때 더 쓸모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2016년 전 세계 7세의 65%는 앞으로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중앙일보)는 예언도 있다.

어느 유명 배우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는 기자의 질문에 "좋은 배우보다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청소년 또한 앞으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위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정의, 이해, 접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시작 '별별랩' 김잡이교사 **엄병훈**

### 01

#### 누가 위기청소년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이 원탁회의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키워드에서 보여지듯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 퇴학, 성매매, 가출, 음주, 흡연 등의 이미지로 드러나는 자의적(?) 유형과 왕따, 피해, 우울, 무기력, 자살, 중독, 부적응 등의 이미지로 부각되는 수동적(?) 유형이 그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위기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다분히 결과적인 분류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대응의 방향은 그들이 위기로 분류되기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로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 대다수는 일시적 복귀와 재이탈을 반복하면서 어느 쪽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사회의 하위문화로 강제 편입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몰린 청소년들에게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지를 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사고를 비틀어보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 이들이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몰린 이유가 이들이 처한 환경적(가정적, 경제적) 요인 외에 이들이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제도권 학교라는 공간의 낙후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 이들은 여전히 정상성만을 추구하고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으며 약육강식(학교 폭력이든 성적 중심의 서열화이든)의 문화가 보편화된 제도교육의 문화에서 기인한 질병을 앓아 도태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 이들에 대한 장기적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제도권 교육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꾸어 예방하는 비용과 배출된(?) 위기 청소년의 복귀와 재활을 위한 반복적 투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일까?
- 위에서 묘사한 유형이 아닌, 즉, 학교 안에 있고, 비행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성매매, 가출의 경험이 없고 자살충동이 포착되지 않고 따돌림의 피해를 입지 않은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



어 있다고(위기가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와 불안에 대한 이해, 사회가 정의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좀 더 확장되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위기 청소년의 수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의 수에 육박하고 있거나 오히려 넘어설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위기청소년을 넘어 위기사회가 되고 있음을 감지하는 지혜로움과 사회적 각성이 필요한 시점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02

### 위기청소년을 만들어내는 교육환경적 요인

우선 이 아이들이 위기로 내몰리는(위기청소년으로 정의되는) 과정에 주목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1차로 비정상(정상성에 상대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으로 분류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이런 분류를 하는 기준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성적)와 교사와의 순응적 관계입니다. 적어도 둘 중의 하나가 충족되어야 정상성을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준에서 비정상적으로 분류된 아이들에 대한 학교(교사)의 시각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아이들은 학교의 적극적 교육대상에서 사실상 들러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문제만 일으키지 마라”

“수업시간에 딴 짓하려면 차라리 잠이나 자라”

“차라리 00같은 기술이나 배워보는 게 어때?”

“게임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니?”

“지방에도 이런 대학들은 여럿 있으니 네가 가고 싶은 학교 말하면 원서 써줄게”

배우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히려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이 배움에 대한 욕구는 더 큰 법입니다. 왜냐하면 주류의 배움은 정해진 것을 좋던 싫던 일정 수준까지 견디고 해내야하는 것이 대부분 이라면 비주류의 영역에 있는 배움은 스스로 선택해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명확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견뎌야하는 주류교육 외의 배움은 가치가 낮거나 순위에 밀려 어쩔 수없이 선택하거나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정도로 치부하고 각인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탈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신의 다름이, 속도가, 선택이 존중받고 환대받지 못하는 공간에서 사람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일탈을 꿈꾸게 됩니다.

**03**

청소년들에게 어떤 교육을  
회복시켜야할까요?

교육부의 생각을 살짝 엿보면,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그간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선택중심 교육과정, 수업시수 증감 편성 허용,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자유학기제의 도입, 진로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 경주

- ➔ 그러나, 학년제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경직성,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부족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
- ➔ 한번 수강한 교과목은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어도 다시 들을 수 없고,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학교가 개설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구조

**방향**

학생의 수업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학습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학사제도를 유연화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2016. 12. 교육부 보고서) 중에서 -

방향이 그런대로 괜찮기는 한데 교육부의 생각 속에서도 학생들의 생각이나 시대의 빠른 변화를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변화에 대한 예측**

구분	과거 또는 현재	눈앞에 와있는 미래
사회적 환경	안정적(점진적) 성장 • 고성장, 완전고용 • 인간 간의 상호 경쟁	혁신적 변화 • 저성장, 고용불안 심화 • AI(인공지능)와의 경쟁(의존)
삶의 형태	단일 진로 • 한 직장에서 한 직종으로 충분히 생존	다중 진로 • 노동시장 유연화(취업인 듯 아닌 듯) • 창업, 창직, 멀티
교육과 진로	형식화된 교육 • 자격증, 졸업장	현실을 배우는 교육 •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 전환력과 유연함

**2) 학습자 주도권**

학습자가 스스로 배움의 내용과 환경을 구성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합니다. 주어진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과거), 다양하게 차려진 교육밥상에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현재 일부)을 넘어 자신이 원하는 교육적 콘텐츠를 스스로 기획하고 만들어 실행하고 배워보는(가까운 미래) 훈련을 할 수 있

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이런 아이들의 기획과정을 조언하고 다양한 교육적 자원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 3) 배움과 사용의 시차 단축 또는 폐기

지금과 같이 배우는 시기와 그 배움을 사용하는 시기 간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일반적으로 초6-중3-고3-대4 총 16년의 과정을 거쳐 사회(일터)로 진입) 앞으로 변화할 빠른 세상(배우고 싶은 것을 원하는 시기에 배워서 바로 일에 적용시키는 흐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활동성에 너지가 많은 청소년들에게는 더 적응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기간만큼 원하는 속도로 배우고 그 결과를 일에 바로 적용시켜볼 수 있는 다양한 모듈의 교육 콘텐츠와 방식이 필요합니다.

### 4) 경쟁구조에 대한 배제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함께 일하는(배우는) 공간에서 동료의식보다 상호 경쟁이 일반화되는 문화는 상위권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의욕의 고취보다는 포기과 체념을 통한 무기력을 학습하게 합니다. 경쟁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와 시간에 맞추어 가며, 기듯 배우지 않는 문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진입하지 않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에 필요한 것은,

- ➔ 긴 경로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시기마다 다른 역량을 탑재하면서 길을 잃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스스로의 생존역량이며,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획일화된 진로 경로가 아닌 다양한 방식과 층위에서 사회진입의 경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다리밖에 없다면 떨어지면 끝이지만(루저, 위기청소년) 종횡으로 이어진 정글짐에서는 미끌어져도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 성취와 상승에 대한 불안과 압박이 줄어들게 됩니다.

## 04 앞으로 변화될 사회에서 누가 유리할까?

우리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유용한 인적자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구시대의 패러다임에 부적응하거나 저항하면서 주류의 경로에서 이탈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한 부적응을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

그룹 안에서 태동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학교의 틀을 떠난 학교밖 청소년들,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학교 문화에 반기를 든 청소년들, 그러한 학교 사회의 정글성으로 인해 생각과 지향을 단아버린 청소년들, 그래서 회피와 저항을 반복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새로 열릴 사회의 모습은 이제껏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드러내고 시도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위의 교육방식이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 대안으로 제시/실험된다면 우리가 위기라고 이름 붙였던 이들에게 어떤 세계가 열려질까요?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은 기존 시스템으로의 복귀 대상이거나 보살펴야할 루저(loser) 집단이지만 새롭게 정의하고 확립해야할 관점은 이 청소년들이아말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받아들일 욕구가 가장 많은 인적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의 해결은 위기라는 상황에 처한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류 트랙 안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어 웅크리고 견디고 있는 다수의 잠재적 위기청소년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의 흐름을 예측하고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그러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는 것이 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로교육은 실제로 아이들이 세상과 마주하게 될 최전방입니다.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회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은 더 많은 소비를 위한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는 체계입니다.

청소년들은 향후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받는 임금의 대부분을 더 많은 소비에 투입함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사회적 신화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불확실한 목표를 향해 맹목적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 트랙 위에서는 고임금과 고소비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결국 소비재의 판매를 통해 최종적 이익을 얻는 사람과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다수의 삶이 남게 될 뿐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낙오의 대가는 가혹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러한 낙오와 낙인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리가 말하는 위기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위기청소년들은 이러한 사회적 신화가 공고해지면서 탄생한 불행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른 삶을 제시해야합니다.

고소비를 위한 고강도의 훈련과 노동이 아닌 적절한 소비와 적절한 노동을 통한 여유롭고 행복한 삶의 지향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위기청소년을 줄이는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은 우선 무한경쟁 체제의 청소년(진로)교육에 일단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발제자료

03

## 위기 청소년 이슈 발굴 및 정책 제언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센터 소장

### 01

#### 청소년의 위기 요인

: 다양한 위기요인의 중첩

- 가정의 구조적·기능적 결손(빈곤, 한부모, 탈북, 다문화, 학대, 폭력, 방임 등)
- 학교 부적응 : 학습부진, 관계 부적응(교사는 학교규범의 대변자로 갈등, 또래는 왕따와 폭력)
- 개인적 특성 : 외향적인 특성은 공격성으로(폭력, 비행), 내향적인 특성은 무기력으로 (게임, 휴대폰 중독), 장애 문제

※ 가정 빈곤+부모의 학대 있고 탈출할 힘이 있으면 가출, 없으면 가정에 은둔

### 02

#### 위기청소년의 유형

- 가출-비행: 거리의 삶은 혹독하며 범죄에 노출되기 쉬움. 주거와 음식 등을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 지는 것이 우선하기에 돈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동원됨. 알바 외에 성매매, 도박, 포주, 도박 등, 범죄에 노출되므로 경찰, 보호관찰, 소년원 등을 드나들게 되고 이것이 훈장(벌)이 되어 사회 적응의 길로 돌아서게 하는데 많은 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 은둔형: 사회관계에서 고립되고 인터넷, 게임, 휴대폰 등으로 시간을 채움. 최소한의 활동으로 연명함. 부모에게 물질적, 정서적 부담을 지우는 생존방식. 집 밖으로 끌어내어 활동을 하고 사회관계를 맺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함. 우울로 인한 자살 위험 높고 공격성을 숨기고 있다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 범죄행위가 되기도 함.

➔ 겉모습은 달라도 모두 불안, 우울/자존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자존감을 높여주며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



### 03

#### 위기청소년 이슈와 대응방안

#### ※ 가출·비행형과 무기력 청소년 중 누가 더 다루기가 나올까? 누가 더 많을까?

가출·비행형은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하고 무기력형은 에너지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실 무자들의 전문성을 어느 쪽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임.

#### 1) 청소년은 지역에 살고 있고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학교 밖 청소년 중단 이후 5년째 거주지 이동 현황 분석 결과 80%가 자기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

→ 지역을 거점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활동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이 매우 중요함.

#### 2)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던 자기 가슴 속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감추고 있다.

→ 이 고민과 불안을 함께 받아들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통해 동기를 키우고 격려해주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자기 미래를 꿈꾸고 연습해 나갈 수 있는 직업 체험장을 조직해 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3)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걸모양과 대응체계

##### ○ 폭력, 비행, 벌점 누적 등 학교와의 갈등으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

(고 1이면 학교 현장을 대부분 떠남)

• 알바 등으로 사회에 참여, 가정적 요인까지 겹쳐 가출할 경우, 생존을 위한 방편으로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 높아짐. 돈이 매우 중요한 청소년들로 수단과 방법 상관 없이 돈이 생기는 일에 몰두하기 쉬움(성매매, 도박, 폭력, 절도, 아프리카 TV 등). 알바 하다 쉬다 직업형과 무업형의 교차적 경험.

→ 분노와 공격성 해소를 해소하고 친밀한 관계, 금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진로교육, 직업교육 필요. 가출 청소년의 경우 주거 공동체 견비한 프로그램 필요

→ 아웃리치가 주요 발굴 수단이 되고 있으나 학교의 비행 청소년, 경찰 등 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 발굴과 지원체계 수립 필요,

#### 학교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청소년을 의뢰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체계가 충분한가?

사법기관, 학교 등이 이러한 청소년을 의뢰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함.

### 외국사례

- ①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 법원 소년보호 처분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 실시, 캐나다에 청소년 재범률이 가장 낮은 주. 숲 체험 프로그램 전문기관이 있음.
- ② 영국 잉글랜드 학교구별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을 의뢰할 수 있는 공교육기관으로 전문교육 기관 있고 교육청이 예산 지원. 학생 유형별로 1인당 교육비 단가 책정 되어 있으며 학교와 동일하거나 학교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함. 스코틀랜드 학교에 대안교실 운영, 너무 힘든 아이들은 관내 학교 학생을 모아서 운영하는 학교 있음. 아이들 이동은 학교가 책임지고 이동시킴.
- ③ 독일 사법기관은 교정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의뢰 시 민간기관에 1인당 예산을 지원하고 의뢰. 보호기관에는 박사급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수가 보장됨.

#### ○ 학교를 피해 집으로 숨은 아이들 : 우울과 자살 충동, 공격성향(일베형)

- 최소한의 외출, 집에서 주로 활동, 잠 자고 컴퓨터하고(게임/일베 등). 용돈, 주거 등 생계를 부모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에는 노출되지 않음. 향후 이것이 불가능해지는 시간이 오면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존재함.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로 재편입시키는 것이 어려워짐. 힘들게 일하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놀. 결혼도 직업도 포기. 아무 것도 꿈꾸지 않고 하지 않으며 시간만 보냄. 집에서 머무는 시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못 받으면 부모와의 갈등과 스트레스로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무력감이 더 심화되어 사회적 재편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음.

- ➔ 가정에 은둔해 있으므로 발굴이 주요 과제,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부모 상담, 부모세미나 등을 통해 발굴해야. 은둔형의 경우, 전문상담사의 가정방문이 필요. 가정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며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됨. 센터 등에서 또래관계, 흥미 있는 활동과 행사 등으로 친밀감 형성을 유도. 센터가 청소년이 와서 편안히 쉴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함.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동기를 갖게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

가정에 은둔해 있는 무업청소년 규모는 파악하고 있나? 이들의 부모가 그 고민을 토로하면 도움 받을 곳은 있나? 답답해 하면서 집에 갇혀 있는 청소년이 나가서 시간 보내며 사람 만날만한 곳이 있나?

### 외국의 사례) 일본

- ①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 전국적 규모 추정, 지역적으로 규모 파악하여 대책 수립
- ② 무업청소년의 분류: 즉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약간의 훈련 후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오랜 기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등
- ③ 이에 따라 헬로우 워크(일자리 소개기관), 지역 청년서포터스테이션( 약간의 훈련 제공 후 헬로우 워크로 연계),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부모상담, 청소년 상담지원, 직업훈련 등 전문적·단계적 지원),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전국 67개), 은둔형 외톨이 서포터 육성연수·파견 사업 실시됨.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발달되어 분포하고 있음.

## 04 결론

외국의 발달된 시스템을 보면서 갖는 느낌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것이다.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돕고자 치밀한 사회교육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선진국가를 보면 우리는 교육에 있어 단 한명이 아깝지 않은, 특정 계층의 아이들만 아까운 사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아직 인구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 인구대국 중국에서 인권이 발달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아직 단 한 명이 아깝지 않은 걸까? 비슷한 정책을 도입해도 우리는 흉내만 내다 끝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 끝까지 투자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청소년 사업은 전문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 인력이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돈과 소비, 경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상처 받고 소외되고 뭐가 뭔지도 모르며 끌려가며 허우적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빛줄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 서 있는 자리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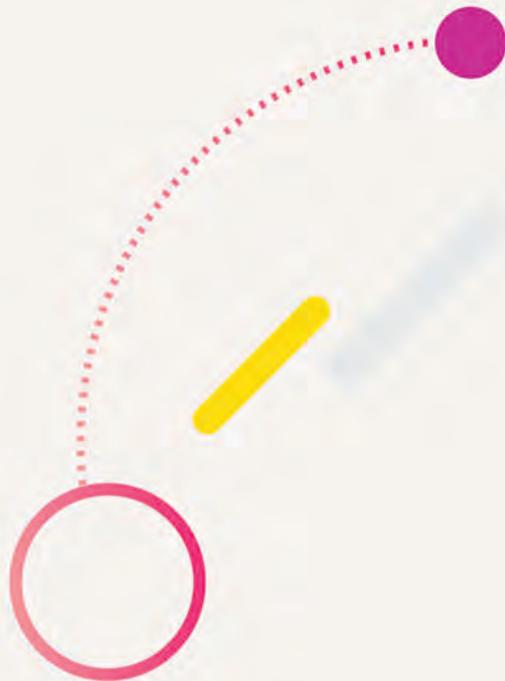




CHAPTER  
03

- 2017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정한 원탁 토론회

## 테이블별 회의 자료





---

1 조  
청소년이  
주체입니다  
연윤실

---

2 조  
드림센터, '위기청소년을 위해  
오늘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은실

---

3 조  
청정한 원탁토론회, 청정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다  
이재민

---

4 조  
위기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백승호

---

5 조  
위기(X) 기회(O) 청소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김나영

---

6 조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그 생생한 현장속으로..  
김혜진

---

7 조  
'저, 위기청소년  
아니거든요!'  
임아영

---

8 조  
위기청소년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던 원탁토론회  
함영주

---

9 조  
'위기청소년정책'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  
주영은

---

10 조  
따로 또 같이  
송중무



## 청소년이 주체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위기성인'인가요? 청소년을 선불리 '위기청소년'이라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청소년은 위기와 직면하고 다루고 해결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우리는 다만 함께 걸을 뿐입니다.



● 회의 목표

위기청소년과 관련된 이슈 세 가지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 접근방법을 도출한다.

회의 구성원

1조, 청소년3, 학부모1, 일반인(대학생)2 및 업무종사자1, 총 6명

- 도시형대안학교 재학 청소년1, 위탁형대안학교 재학 청소년2, 자녀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1, 청소년학 전공 대학생2, 대안학교 강사1
- 처음에는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나이와 직업이 서로 다른 만큼 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견해가 크게 달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의 구성원들은 청소년 당사자이거나 청소년 자녀가 있거나 청소년과 교육으로 만나는 등 청소년과의 접점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원활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고, 비청소년도 청소년의 입장에서 논의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비청소년이 청소년 당사자가 공감하지 않는 의견을 낸다거나 청소년 당사자와 비청소년 간에 괴리가 커 논의에 다소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이전에 드림센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퍼실리테이션 교육에 여러 회기 참여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접근, 가치, 철학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갖가지 기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청소년들과 활동계획을 세울 때, 여행을 기획할 때, 다수가 축제기획에 참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이번 원탁토론회가 나름대로 유용하게 활용했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기법과 방법, 유의사항을 상기해보았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발제자료를 미리 훑어보며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도착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소개함으로써 초기의 긴장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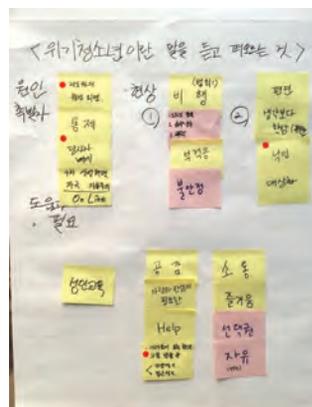
**회의 도입**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의 낯설고 경직된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위기청소년의 이슈와 해결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접근하면 참여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하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막연하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이야기부터 풀어나가며 긴장을 풀고, 구성원들 간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기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느낌, 단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다룬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단어들은 주로 부정적인 단어들 많이 구성원들도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저와 비슷한 관점에서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조원들은 비행, 부적응, 불안정, 폭력 등 소위 위기청소년과 함께 연상되는 현상 뿐 아니라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의 시선-편견, 낙인, 대상화-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나아가 위기청소년을 촉발하는 원인으로서 사회적인 통제, 당사자 배제, 자본주의 등을 찾아내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소통, 공감, 선택권, 자유를 꼽았습니다.

이렇듯 한 차례 비교적 가벼운 수준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며 서로 비슷한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는 기대를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구성원들이 청소년이라는 소재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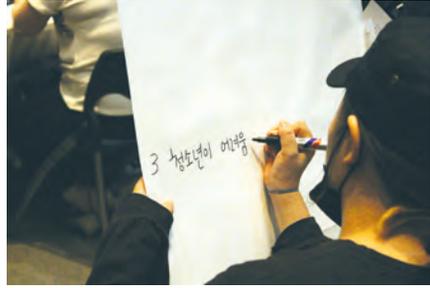


## 회의 과정

'위기청소년'하면 떠오르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어느 정도 파악했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큰 어려움 없이 갈래가 잡혔습니다. 구성원의 나이와 직업 등이 상이했지만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제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도입 부분에서 나는 이야기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주제 3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색션의 소제목을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정했습니다. 필기는 구성원 중 자원하는 사람이 하기로 했고 자원한 청소년이 그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참여자 중 한 사람이 필기를 도맡아주니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의의 방향과 흐름을 잡아가지가 수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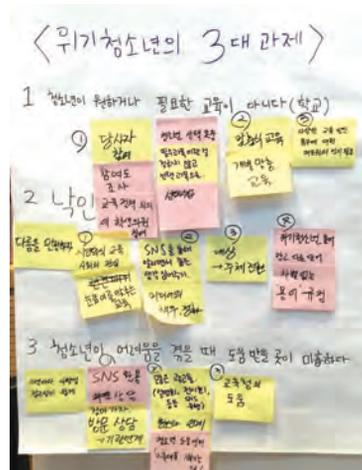
소제목에 관련된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적고 다함께 볼 수 있는 큰 전지에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분류할 수 있을지 고민될 정도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비슷한 의견끼리 모으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로서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여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끼리 임의로 합쳐버리지 않고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분류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참여하고 동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누군가가 제시한 분류에 다른 참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스트잇을 작성한 사람에게 본래의 의도를 묻고 부연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원들과 함께 분류해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사가 고루 반영되고 각자의 의견이 본래의 의도대로 공유될 수 있었습니다.



소 제목 아래 묶일 수 있는 포스트잇은 한 데 모아 번호를 매겨 구분하였고 다소 넓은 범위의 의견은 맨 앞으로 가져와 하위의 의견을 포괄하는 형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 회의 결과물

청소년이 위기를 겪거나 방황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공교육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거나 성과와 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원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직접 교육정책을 만들고 원하는 배움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낙인 그 자체입니다.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고 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청소년 당사자의 주체성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이 같은 사회적 시선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빅데이터로 분석했을 때 크게 성매매, 중독, 폭력 등 비행의 축과 캠페인, 프로그램, 상담, 지원 등 복지지원의 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을 통제하거나 청소년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해주고자 하는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을 일반화하거나 소비하지 않도록 미디어의 정화와, 대중에게 검증되지 않은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는 미디어의 책무가 요구됩니다.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수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실효성 있는 홍보, 찾아가는 상담, 교육청 연계 등으로 청소년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별 토론에 대한

#### 평가 및 소감



청소년, 학부모, 전공자, 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논의해본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이해를 좁혀갈 수 있을까 걱정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여 청소년들은 비청소년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차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나 발제를 듣는 시간보다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론시간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학교에서의 경험으로 구성원들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조율하는 논의과정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상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청소년의 주체성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 대안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 청소년학 전공자 등 나이와 직업이 상의하지만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청소년이거나 청소년과의 접점이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다만 우리 조와 달리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성인들과 함께 자리한 청소년들이 있다면 논의과정에서 불편한 점들이 생기지는 않았을지 우려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발제 자체가 토론의 논의주제와 적확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적었고 토론회에서 도출하고 싶은 보다 구체적인 결과와 방향이 모호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교육, 청소년활동, 청소년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다면 새로운 교육모델, 혹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혹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및 활동으로 논의주제를 삼는다면 비행,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능동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로 분석한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 비청소년들이 청소년의 여러 문제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입장에서 도출된 주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의 현황을 참고하고자 했다면 빅데이터보다는 실제적인 조사 연구결과나 청소년의 진술 등을 참고하는 것이 더 유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위기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의 경직된 시선에 대한 불편감이 있었습니다. 비청소년의 경우 위기청년, 위기성년, 위기장년, 위기노년 등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만을 위기청소년이라 명명하는 현상은 사회적으로 청소년을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주체로 보지 않는 관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지원, 치유, 돌봄, 보호, 통제 등으로 국한되어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조별 토론을 통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혼자만의 우려가 아니며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청소년을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조별 토론을 마무리하고 자기 조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여러 청소년들 덕분에 무거운 토론의 장이 아닌 축제의 장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청소년이 그 작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 드림센터, ‘위기청소년을 위해 오늘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청정한 원탁토론회’는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인식, 집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었던 것과 다르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기대감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저의 소감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회의 목표

위기청소년을 위해 오늘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회의 구성원



저는 퍼실리테이터로 2조와 함께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에서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두 분, 미디어센터 등 청소년관련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 두 분,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학업생활을 하고있는 청소년 두 분, 그리고 저와 함께 총 7명이 함께 회의기법 중 하나인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하여 회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에 대해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주최인 드림센터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함께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적절히 설정하였습니다. 이 방법과 관련하여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는 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양한 연령대의 회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판단 됩니다. 성인의 시각으로만 볼 수 있었던 위기 청소년들의 이슈들을 청소년들이 함께 토론함으로써 객관화하며 청소년들의 의견 또한 그러한 연유로 객관화 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현재 청소년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의 논점과 성인의 논점에 매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청소년 당사자는 현재 삶에서 체감하며 경험하고 있는 이슈(학교, 술, 화장, 돈, 편견, 놀이문화, 범죄 등)를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성인참석자들은 공론화 되어있으며 보호, 지원이 필요한 이슈(편견, 진로, 적성, 평생교육, 몰카, 핸드폰 중독 등)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생각하는 이슈들의 영역이 분명히 달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성인과 청소년들의 입장이 묘하게 나뉘어졌음을 느꼈습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업무종사자’라고 분류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의에 참여한 청소년 관련 업종 종사자는 근로자, 노동자의 느낌이 들어 현장전문가 또는 청소년전문가라고 불러주는 것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 사전준비

저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회의 기법을 제가 아는 유능한 전문가 선생님께 전해들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회의 기법이라고 생각하여 관련 교육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저의 개인적인 일정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쉬운 대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회의 기법과 관련한 자료들을 찾아 읽으며 제가 근무하는 대안학교의 대안 교과 중 한 과목으로 '공동체 회의'를 개설하여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정한 원탁 토론회에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다시 관련 자료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선정되어 회의를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문제들은 가출, 음주, 흡연, 자퇴 등이었습니다. 관련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과 과연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도출해 낸 결론은 '그들을 빼 놓고 결정 된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 위기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신데렐라 밥'이었을까요? 왜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술과 담배를 허용하자는 생각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왜?'라는 원인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원탁토론회를 진행 할 때에는 구체적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공론화 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닌 참석자들이 어떤 마음에서 위기 청소년의 이슈를 제기하였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미리 회의장에 도착하여 발제를 읽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중 빅데이터 부분에서는 '일베', '검추천'등과 같은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도출된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나 역시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밤 스스로 고민했던 이슈들이 무력해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청소년이라고 자각하든, 하지 않든 청소년 당사자인 그들의 입장에서 이슈, 그들의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회의 도입

대안학교에 위탁되어져 있는 청소년들도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무기력할까?', '무슨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될까?', '재미없고 따분할 것 같이 느껴지진 않을까?', '오늘 이 회의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이슈가 아닐까' 등등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봐주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간략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이슈에는 빅데이터처럼 많은 영역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 위기청소년하면 생각 나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내었습니다. 한 청소년 참가자는 질문하였습니다. "뭘 적어야 할까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던 대로 "요즘 당신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것들'. 그냥 듣기에는 그게 무슨 이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저의 청소년기 경험들을 되돌아 보면 짜증나게 하는 이야기들은 항상 친구들 사이에서의 '이슈'였습니다. 그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이 '진짜 이슈'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의 도입 전 각자가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위기청소년 이슈와 관련된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는 2조

### 회의 과정

조원들과 함께 적은 이슈를 대표하는 단어들은 약 30개였습니다. 이 단어들을 아래의 표와 같이 영역별로 나누고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표1. 회의 참가자들이 적은 청소년 이슈단어를 항목별로 나눈 것을 정리>

번호	항목	여가	미래	범죄	학교	환경	심리	경제
1		술	진로	청소년 범죄	등교	수면	독립	버스비
2		먹기	적성	음란물	아침에 일어나기	잔소리	핸드폰 중독	돈부족
3		놀이	평생 교육	불법 촬영	등교 지하철	통금 시간	자립	
4		오늘 뭐하지?			머리 감기	가족	편견	
5		뽕이*			화장		한계	

\* 뽕이 : 친구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목적 없는 모임을 가짐. 사용예) 뽕이치다, 뽕이까다.

세 개의 이슈를 도출해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 전문가는 동그라미 스티커를 활용하여 참가자가 정책이 먼저 공론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주제에 스티커를 붙이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동의하여 방법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한 참가자는 참가자의 수가 적으니 1인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하였고 모두가 동의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스티커가 붙은 학교를 주제로 하여 '위기청소년의 학교'라는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의 이슈를 나타낸 단어들을 비슷한 영역으로 나누는 모습

회의를 진행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더 청소년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회의의 전체 진행자분께 “이제 정책을 이야기 해야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정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위기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으세요.”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무지하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제가 먼저 학교의 문제에 대해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위기청소년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똑같은 기준의 학생을 지도하고 평가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은 모두 제각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단편적인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교사, 교감, 교장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지 않은 학생지도 및 상담은 핸드폰을 찍어내는 공장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해결방법으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나 감정에 대해 각 반별로 나누고 이를 작성하여 학생부장, 교감, 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많아서 어차피 모른다’는 반론이 제기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늘 존재합니다. 학생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쏟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표로 2조 회의 참가자들의 문제와 원인, 해결방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문제제기	원인	해결방안
대학생 실습자	주입식교육의 역기능 발생	획일화된 교육과정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청소년	학교가 지루하다	하는게 없기 때문이다	학교를 없앤다
현장 전문가 1	획일적 집단교육	입시제도 변화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자기 적성을 찾는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현장 전문가 2	원론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한 교칙에 의한 일탈규정	일방적인 규칙	학생과 교사 양방이 합의한 학교교칙 설정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원인,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회의참가자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견을 전지에 작성하는 모습

**회의 결과물 | 결론, 마무리와 발표 등**

결론은 학교 교육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이어졌습니다. 2조에 참여한 청소년 2명은 현재 대안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이들의 결론은 “학교를 없애요.”였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는 지루하고 할 것이 없는 ‘그런 학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발제를 들으며 학교는 변화하는 세대, 시대, 청소년, 사람에게 부적응한 ‘위기 학교, 위기 선생님’들이 청소년들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거스르는 청소년들의 행동수정 및 인성함양 등을 위한 이들의 분류를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모두 평범한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2조의 활동 과정과 이슈 그리고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모습

결론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아마 사랑하는 통통이들에게 그들의 입장에서 ‘부적응 교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별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나보다 오랜 기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지낸 전문가 분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함께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편안해졌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과 희망이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청소년 모두 대안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위기청소년들을 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학교 만나오는 학생을 보는 소위 ‘위기가 아닌 청소년’들 눈에는 그들을 위한 정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청소년이 아닌 ‘위기가 아닌 청소년’들의 모집 또한 같은 비율로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토론장의 조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은은한 색의 조명은 딱딱할 수 있는 토론장을 따뜻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암묵적인 공감기가 있었다고 느낍니다. ‘뭐라고 말하든 괜찮아. 너는 너의 색을 나타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나일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1. 퍼실리테이터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회의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말을 조금 해야 합니다. 회의를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지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이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놓친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검수자입니다. 저는 참가자였던 것 같습니다. 회의 시간이 적어서 급박히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말을 빨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은근히 회의의 분위기를 몰아간 것도 사실입니다. 남 탓을 해보자면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교육자료 또는 운영 방법에 대해 기관에서 미리 공유를 해주었다면 조금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 그러나 저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 만 24세 청소년입니다. 2주가 지나면 성인이겠지만, 참여한 당시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기특한 청소년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청정한 원탁토론회, 청정한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다



이번 [청정한 원탁토론회]는 저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불어 넣어준 것 같이 다양한 구성원들과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제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저의 소감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목표	현재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3가지 적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회의 구성원	<p>2조, 일반인 2, 업무종사자2, 청소년2 총 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담당했던 조별 구성원(이름, 소속 등) 소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청소년 관련 종사자 2명, 일반인 2명, 청소년 2명이 그룹으로 구성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li> <li>· 조별 구성 방법(청소년/종사자/일반인 비율 제한 및 입장 순서별로 구성한 방법)에 대한 평가 및 의견제시 조별 구성에 있어서 비율 제한을 두었던 것은 다양한 계층, 연령별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입장 후 자리를 자율적으로 앉다보니 같이 오신 분들끼리 앉거나 혼자 오신 분들은 다소 어색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디에 앉아야할지 우왕좌왕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부분이 입구에서 출석 체크 시 그룹을 분류해주어 조별로 신속하게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li> </ul>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p>이번 토론회는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원탁 토론회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무를 하면서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을 통해 수련관 내 동아리 친구들과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 하였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다.</p> <p>일단, 위기청소년이 정말 위기일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된 것 같다. 나는 위기청소년이란 단어 자체에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위기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청소년들은 정말 자신이 위기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p> <p>요즘 이슈화 되는 것들은 위기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사로 나오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음주, 비행, 우울 등의 부정적인 기사들과 상담, 회복 등의 긍정적인 기사들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일 토론회에서는 내가 조사했던 것들과 더불어 본래 정의 되어있는 위기청소년의 범주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여하다보니 보니 다소 무거운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컸지만,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쉽고,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p>

## 회의 도입

전문가들의 발제가 끝나고 원탁에 모인 구성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진행하였다.

대안학교에서 온 두 명의 청소년들과 전주에서 초등학교 아들과 오신 어머니,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발제를 하시고 우리 테이블로 오신 박사님까지. 다양한 연령과 경력을 갖춘 분들이 모여 어색하지만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첫 번째 내가 토론회에 오기 전 고민했던 '위기청소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한번씩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이야기하기 힘들어하는 구성원들을 위해 사전모임 때 알려주신 방법인 포스트잇을 활용한 참여방법을 활용하여 구성원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소개 후 포스트잇에 토론 주제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적는 모습

## 회의 과정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토론 주제를 정해야 했기 때문에 한명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눌지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였다. 한명씩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각자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토론 주제를 나누었다.

자존감 회복, 젠더(성평등), 성문제, 부모교육, 은둔형 외톨이, 교육문제, 학교폭력, 갈 곳이 없는 청소년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학교 부적응, 가정문제, 의사표현 등 다양한 안건을 도출하였다.

모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면 좋겠지만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고자 하였다. 우리는 먼저 토론을 통해 대안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다는 것에 인정하고 편안하게 모든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자고 하여 구성원들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토론 주제를 정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비슷한 주제이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주제는 첫째, 포괄적인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하여 둘째, 은둔형 청소년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성에 대한 토론을 할 때에는 청소년들의 다소 직설적이고 솔직한 의견들을 먼저 들을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첫 성관계를 맺는 연령이 중학교 1~2학년이라는 이야기와 SNS를 통해 성매매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등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들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주제인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선생님의 사례를 들으며 현장에서의 어려움들과 필요한 제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시점에서도 관심을 특별히 갖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은둔형 청소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모두 협력하여 제도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시간동안 활발하게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다소 어렵거나 무거운 이야기가 나올 때, 딱히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구성원들 모두가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너무 활발했던 나머지 우리가 세 번째 안건으로 정하였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도 못하고 두가지 안건으로 마무리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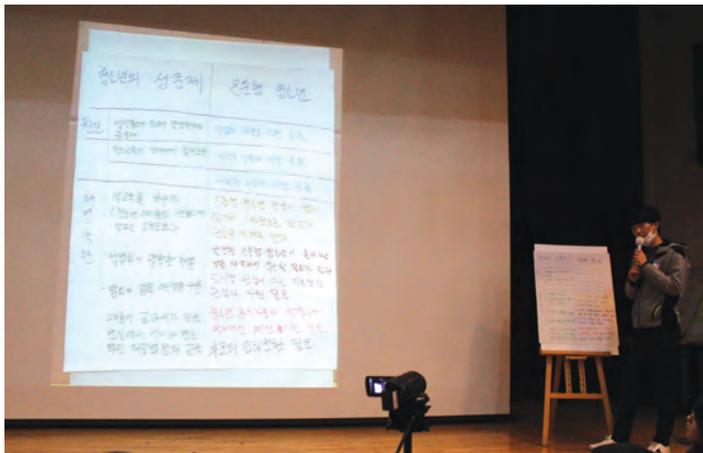
토론 내용을 발표하고 정리하는 모습

### 회의 결과물

3조에서는 포괄적인 청소년의 성문제와 은둔형 청소년을 어떻게 사회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주제를 정하였는데 시간관계상 토론이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토론의 내용을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토론 내용을 무대에서 회중들에게 발표하는 모습

### 1. 포괄적인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하여

문제제기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들을 통해 대부분의 성 문제가 발생</li> <li>성인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 문제 변화</li> <li>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부분을 성인들이 인정해주는 문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함</li> <li>건전한 성 문화 정착 필요</li> <li>청소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이라는 의식보다는 한명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해줘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와 범위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제적 성관계(데이트 폭력)와 상호 합의하에(좋아서)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S를 통해 너무 쉽게 성매매에 노출이 됨</li> <li>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필요 (숨방방이 처벌, 심신미약(술먹고 범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함</li> <li>아동 및 청소년증사자의 경우 다시 관련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함</li> <li>청와대 국민청원, 아고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성 범죄(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성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li> <li>아동이 성교육이 되는 현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성 교육으로 전환의 필요 (외국사례 검토)</li> <li>피임기구의 사용법과 판매처에 대한 교육</li> <li>성교육 전문가 지원 및 양성</li> </ul>

## 2. 은둔형 청소년에 대하여

문제제기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발굴 자체의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학이 함께 은둔형 청소년을 발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절실. 특히 1차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함</li> <li>• 후에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사회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함</li> <li>• 내 아이는 아니라는 부모의 인식전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관심을 파악하여 주변 인물들이 접근 필요</li> <li>• 상담과 더불어 다양한 청소년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성 향상</li> <li>• 일시적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양성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절실</li> <li>•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청소년 정책 필요</li> <li>• 프로그램 예산지원 증액</li> </ul>

### 특별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처음 시작부터 전문가가 발제하는 1부 순서까지 다른 테이블에 비해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초조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토론이 시작하고 나서 그 초조함은 기대감으로 차있었다. 짧은 토론의 시간이었지만 위기청소년들을 위하여 주체인 청소년과 성인, 청소년종사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원탁에서 그룹별로 이야기를 한 것이 테이블 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부분이지만, 이 내용들이 과연 이 토론회에 온 모든 사람들의 의견일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정리된 내용을 잘 분석하여 중첩되는 내용이나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향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접근했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 발제 내용도 이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 점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발제 시간이 다소 늦어지면서 원탁토론 시간이 줄어든 점과 끝나는 시간이 늦어진 점은 아쉬움으로 평가된다. 테이블 별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드림센터 내 대안학교 친구들 외 다양한 청소년들을 볼 수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각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연계가 되어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하였다면 더욱 좋은 토론회가 되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소감은 처음 준비하면서 들었던 위기청소년이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이나마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

###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테이블에서 토론을 진행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들이 들었다. 나는 지금 진정 청소년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청소년들을 위한지만 쉽게 지나가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스스로 초심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청소년이 말미에 이야기했던 소감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그 청소년은 처음 큰 기대감없이 오게되었는데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거부감없이 모두 들어주는 어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렇다. 위기청소년들도 보통의 사람들도 대체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통이 부족한 사람들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위기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저에게 이번 청정한 원탁토론회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 퍼실리테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워크숍을 진행 했었기에 이번 토론회가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기청소년의 대해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되었고 이 계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회의 목표

위기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 회의 구성원

4조, 일반인 및 대학생2, 업무중사자2, 청소년3, 총7명

- 청소년학 전공 대학생 2명, 청소년 업무중사자 2명, 청소년3명으로 구성
- 다양한 각양 각 측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테이블에 표기를 하기 보다는 리셉션을 할 때 미리 조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함

###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 사전준비

처음 퍼실리테이터로 원탁회의를 진행에 참여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과연 내가 다양한 각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으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찾아보던 중 전 직장에서 swot분석을 했던 회의 기법이 퍼실리테이션 기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 활용했던 자료와 과정을 정리를 해보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했었는지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해 논문을 찾아보면서 청소년관련업무중사자와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리를 하며 나는 위기청소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회의장에 도착하여 발제를 읽으며 회의장에 도착 전까지 정리했던 내 생각과 발제를 내신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비교를 하며 과연 이번 회의를 통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 회의 도입

관련 학과, 업무중사자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연 이번 회의를 무사히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말을 잘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많은 걱정을 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맨 처음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해 각자의 이름을 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지 포스트잇에 적었다. 그 중 제일 많은 질문은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어떻게 적어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이었다. 그래서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식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위기청소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거나, 혹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비행, 흡연 등' 간단히 생각나는 것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각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4조에서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 회의 과정

조원들과 함께 위기청소년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단어 또는 문장은 13개였으며 이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소통無, 관계, 성, 금연교육과정, 폭력, 왕따, 학업과 심을 분리, 학원에만 가는 청소년, 꿈이 없는 청소년, 현실에 부적응, 학교에 부적응, 낙인, 기회, 위기청소년은 없고 위기만 존재한다.

이 많은 단어와 문장을 세 개의 이슈로 도출하기 위해 '소통無, 관계, 성, 폭력, 왕따', '학업과 심을 분리작업, 학원에만 가는 청소년, 꿈이 없는 청소년, 현실에 부적응, 학교에 부적응', '낙인, 기회, 위기청소년은 없고 위기만 존재한다.' 3가지로 분류 하였고, 분류를 바탕으로 이슈주제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3가지의 분류된 단어와 문장을 바탕으로 각자 이슈주제를 작성하며 다 득표한 이슈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이슈주제를 작성하기 전에 부담스러워 하는 조원들에게 '답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내용일 뿐이니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 하면 된다.' 라는 말을 이야기 하며 조원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렇게 부담감을 덜어내고 각 분류별 이슈주제를 작성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그중 다 득표한 이슈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2.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만들기
3.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적 보완 필요

3가지의 이슈주제를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서로의 의견까지 들으며 빠르게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생각했던 걱정은 정말 걱정으로 끝날 정도로 조원들의 참여도도 높았으며 각자 생각한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져서 중간 중간 양해를 구하며 끊고 가야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3가지 이슈를 선정 후 각 이슈 별 해결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논의하기 전에 각자 해결방안에 대해 2가지씩 적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가지씩 적어서 이야기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하나 소중한 의견들이여서 쉽게 간추리기는 어려웠고, 너무 많은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어, 청소년들에게 부탁하여 간추리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각 주제 별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걱정과는 달리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이슈 선정부터 해결방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 회의 결과물

4조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

-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경청과 공감
- 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적정의 도입
- 왕따 교실 담임지원방안 마련
-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만들기
- 10대 성매매 학생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 전문가의 자문과 개입필요
- 공동체교육 활성화(연령에 맞는 교육진행)
- 방관자가 되지 않기
- 비밀보장이 되는 인물과 상담하기

### 2.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만들기

- 현실이 즐겁도록 하는 학교 문화
- 특성화된(가정별) 대안교육 활성화
- 학교환경 개선
- 생각하기 자유로운 시간 제공
- 부모교육 의무화(연령별 학년별 체계적으로)
- 사회활동과 직접적 연관되는 학과과정 선택
-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 주는 환경
- 국공립 대학교로 전환, 교교의 취업 교육 질 높이는 지원 마련

### 3.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적 보완 필요

- 청소년의 다양성 존중(부적응 x > 다양한 O)
- 공포, 위협으로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기사에 대한 문제 제기
- 위기청소년 > 변형청소년으로 명칭 변경
-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캠페인 진행
- 청소년의 부정적 용어 변경 필요 ex)가출청소년 > 가정밖청소년
- 청소년정책에 의무로 '위기청소년'이 참여하여 반영하기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만큼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이 달랐고 의견을 나누며, 해당 연령층에서 생각하는 바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 이야기가 회의에 참여한 인원뿐만 아니라 그 외 인원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우리가 위기청소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조별 토론에 대한

#### 평가 및 소감



우선 내가 활동했던 기간 보다 오랜 기간 청소년들과 만나고 지낸 업무 종사자들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색하지 않을까, 누를 끼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 될수록 걱정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이야기 하는 모습에 내가 했던 걱정들은 정말 걱정으로 끝났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 하는 행동에 조원들 모두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 각 연령층 별, 계층 별 인원분배를 하여 회의가 진행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성인의 비율보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았으면 더욱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논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본다.

#### 전체적인

#### 토론회에 대한

#### 평가 및 소감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인 또는 대학생들의 연령층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것에 놀라웠다. 실제적으로 곧 필드에 나갈 관련학과 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토론회 장소의 접근성이 좋았으나, 발제 내용이 사전에 제공되지 못하여 당일 파악해야 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 퍼실리테이터로서

#### 참여한 소감

• 퍼실리테이터는 회의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적이여야 하며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이에 있어 회의를 진행함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의견조율에 있어 실수는 없었는지 생각이 든다.

• 하지만 조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었기에 이번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한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위기(X) 기회(O)청소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 본인이 위기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 2조에서는 이곳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기청소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허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위기, 도대체 누가 정해주는 걸까요? 사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던 저에게는 이번 원탁토론회의 경험은 조금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마 저희 5조의 토론 내용을 보신다면 저처럼 '위기청소년'에 대해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들이 나누는 소중한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목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찾기

**회의 구성원** 회의 구성원

진행자  
1명

청소년  
3명

청소년  
지도자  
3명

제가 속해 있던 5조는 학교 밖 청소년이자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청소년(중, 고등학교 연령), 청소년 관련 현장에서 일하시는 청소년지도자 3명, 저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회의도입 : 여는 나눔

- 자기소개 및 참가목적 나눔
- 진행 방법소개

중간과정

- 1. 본인이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이란?
- 2. 위기 청소년이 겪거나, 가지고 있는 문제는?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기)
- 포스트잇 떼어내며 발표 & 연관되어 있는 것들 묶기
- 그 외에 다른 문제점에 대해 찾기

회의결과

- 해결방안 찾기
- 마지막 정리 및 발표자 정하기

### 회의 도입

- 청소년 3명 : 같은 계열의 대안학교를 다님, 세 명 다 아는 사이. (연령상으로는 중~고등학교 나이)
- 청소년지도자 1분 : 청소년현장에서 근무 중. 위기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한 정책, 해결방안에 대해 듣기 위해서 참가
- 청소년지도자 2분 : 이번 원탁토론회 주최한 센터 측과 관련된 현장에서 근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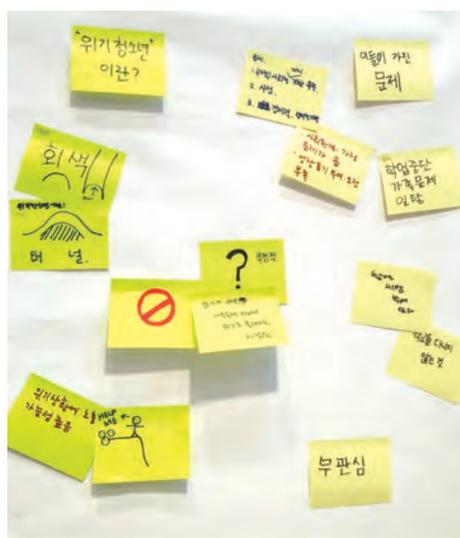
저희 테이블은 청소년지도자 vs 청소년의 구조로 배치가 되었고 사전준비과정에서 의견이나 눈높이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소년관련 학과를 졸업했지만 아직 현장경험이 없는 제가 중간지점이었기에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회의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소개 이후 어떻게 원탁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번 원탁토론회에 오게 된 계기는 각자 달랐습니다. 단체행사 참여로 비자발적으로 오기도 하였고,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명쾌하게 다루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각자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달랐기에 누군가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자리였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한 관점과 새로운 이야기를 타인과 나누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회의 과정

5조에서 집중한 내용은 '위기청소년은 누구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처한 문제점은?'입니다.

옆의 사진은 각자가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포스트잇에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회색' '터널'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금지' '물음표(부정적)' '위기가 아님에도 위기로 불려지는(불리는) 사람들', '낭떠러지 앞에 놓인 사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 포스트잇을 떼어가며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형광노란색 : '위기청소년이란', 노란색 : '이들이 가진 문제'

1. **터널·회색** : 답답하고 어두운 곳. 분명 끝은 있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터널 안의 상태와도 같다.
2. **위기가 아닌데 위기로 불리는 사람들** : 많은 청소년들이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기로 부른다. 이들은 학교에서 부적응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기로 불린다.
3. **낭떠러지 앞에 놓인 사람** :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어른들을 위해 '도와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진정으로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다.
4.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 학업중단, 가출 등의 사건들 속에서 말 그대로 위기 상황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5.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어떤 존재** :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조건적으로 사고를 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존재이다.
6. **금지** : 청소년들이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들을 학교보다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의견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p><b>표 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가 아닌데 위기로 불려지는(불리는) 사람들</li> <li>• (물음표)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어떤 존재</li> <li>•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은 존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li> <li>• 회색</li> <li>• 낭떠러지 앞에 놓인 사람</li> <li>•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li> </ul>
----------------------------------------------------------------------------------------------------------------------------------------------------------------	----------------------------------------------------------------------------------------------------------------------------

5조에서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이란 1.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존재 2. 상황적위기에 처한 존재로 정의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p><b>표 2</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직)사회적지지 기반이 부족</li> <li>2. 시선</li> <li>3. 경제적, 정서적 기반</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환경, 가정 문제가 큼</li> <li>2. 성장동기 부여, 도전부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업중단</li> <li>2.가족문제</li> <li>3.일탈</li> </ol>	<p>학교라는 시스템 밖에 있음.</p>
<p>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p>	<p>무관심</p>

위의 표1 표2에서 분홍색은 참여한 청소년 / 파란색은 청소년지도자와 저의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각자가 위기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왜 문제죠?'에 집중하였고, 지도자를 비롯한 저는 '가정, 사회, 학교와 같은 주변상황에서 오는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두 가지 이슈를 모두 선정하여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된 사안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가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위기청소년' 앞에 붙는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한 시기나 고비를 뜻합니다. 분명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말하는 '위기'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허나 이 위기라는 단어가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부정적인 낙인(stigma)효과를 줄 수 있고, 말은 생각을 지배하기에 위기라는 단어가 아닌 '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말 그대로 위기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맞고, 위기라는 단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잘 대변할 수 있기에 단어를 바꾸기보다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토론 속에서 '과연 위기는 무엇일까?', '누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와 같은 물음은 굳이 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 위기 상황으로 정의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비위기상황을 굳이 따지고,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청소년의 상을 굳이 규정짓는 획일화된 평가방법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된 사안은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부족한 기반입니다. '위기다, 위기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탈위기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은 많지 않은 걸까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조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 속해있던 청소년들이 어렵게 자기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해외에서 거주했고, 해외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허나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 지난 학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기청소년이 되어버렸던 이야기 속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폭넓게 다른 학력도 인정해 준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아이들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청소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으로 몰아버린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해결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 회의 결과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 이슈1.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위기' 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기
  - 위기보다는 '기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 청소년 개개인에 대해 관심 가지기
  -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나온 획일화된 평가방법은 문제가 있다. 정말 문제상황이 아닌 청소년까지 문제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이 가진 다양한 관심사, 특기, 재능을 인정하고 청소년 개개인에게 차별성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5조의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청소년의 모습

#### 이슈2. 위기청소년에 대한 부족한 기반

-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배운 과정도 폭넓게 인정
  - 동등한 해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안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인정이 되지 않아 다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다.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지원시설 확대
  -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 다양한 꿈, 관심사,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 복지·교육과 같은 전 지원시설을 증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수도권에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증설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조별 토론회에 대한

원탁토론회의 참여자인 청소년들이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주배경청소년이라든지 가출청소년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탁토론회의 주제를 '위기청소년'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으로 범위를 좁혔더라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평가 및 소감

####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사실 회의 시작 전, 가장 먼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였습니다. 1부 발표 내내 함께 있던 청소년들은 '헐! 이것도 나와' '대박'등과의 반응이 나올 정도로 빅데이터가 현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빅데이터 분석이나 주제 관련한 발제를 들으며 궁금하거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것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를 이해하면 요즘의 청소년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하게는 발제 중간에 나왔던 단어인 '토사장', 'BJ', '별풍선' 등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고, 윤철경 발제자가 던져주신 '위기청소년의 유형 중 가출·비행 청소년들의 유형이 많은가? 아니면 이들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은둔형의 유형이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 등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허나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 평가 및 소감



청소년들이 발표를 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청소년이 많은 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박수쳐주는 모습을 보며 '이 토론회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제가 생각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원래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하는 역할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난 후 알게 되었지만 '토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서포트를 해주어야 하는 가장 말수가 없어야하는 사람'이 퍼실리테이터였습니다.

저는 이와는 다르게 저도 하나의 참여자로서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자꾸만 공감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퍼실리테이터의 본분을 망각하며 열띤 토론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지하게 제가 가장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 진행에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마지막에는 시간을 맞추느라 허겁지겁 결론을 내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어떠한 학자나 전문가도 한 시간 만에 어떤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환상적인 결과를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 토론회에서 "꼭 멋진 결론을 내야한다."는 목표가 있었더라면 분명 우리들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론회가 끝난 지금도 '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라며 실패감에 사로잡혀있을지도 모릅니다. 허나 결과 위주의 결말이 아닌 그 과정 자체에 비중을 두는 주최 측 덕분에 조금 더욱 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이 그냥 대화를 나눈 것,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친 청소년이 "예!"라고 소리를 지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의미로 지른 환호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기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느껴졌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그 생생한 현장속으로...

저에게 이번 원탁토론회는 생생한 청소년 현장이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 폭넓은 연령대의 분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휴직 중에 있는 저에게 청소년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저의 소감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회의 목표

위기청소년의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 회의 구성원

6조는 위탁형 대안학교에 인문학강의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과 청소년 상담활동을 하시는 세 분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두분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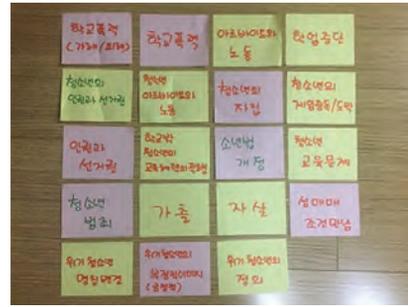
기관에서는 청소년2, 일반인2, 청소년관련종사자 3의 구성을 계획하셨는데 저희 조 구성을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 학생2명과 나머지는 다 종사자 분들이라 보니 일반인의 시선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세대의 차이, 경험의 차이들로 인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많은 차이를 보였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조 구성원 사이에서 의견을 좁혀 나가기에는 토론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중간에 의견을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토론이라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위기 청소년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강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쉽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강의에서 나왔던 이슈들에 대한 키워드를 포스트잇에 적어 보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기관에서 나눠주신 스티커를 활용하여 대화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이끌어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 회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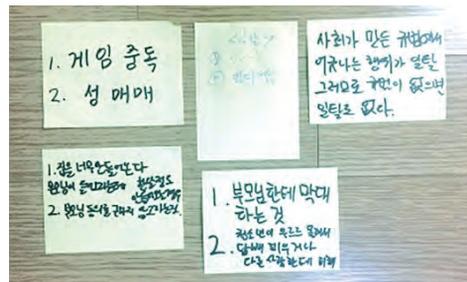
위기청소년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잠깐 다과시간을 갖은 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과를 먹으며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전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통해 토론회 참여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으로 시간 때우기 식의 참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청소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였으며 오늘 강의가 어땠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던 중 청소년이 왜 자기들을 위기청소년이라 부르는지 모르겠다 난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오늘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준비해 놓은 키워드 포스트잇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청소년의 입에서 나온 청소년이슈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회의 과정

**위기 청소년? 우리는 위기 청소년이 아니에요!!**

자신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주제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은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데 다 통틀어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기의 기준이 뭐며 누가 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위기에 대해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적어 보기로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담배도 그냥 다 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이를 정하는게 의미가 없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게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해서 위기에 대해서 성인이 생각하기에 파격적이고 위험한 일들을 꺼내놓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소소하고 실생활적인 이야기들이었고 성인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미디어에서 접하는 위기청소년의 모습을 표방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름 붙인 위기 청소년들의 정의는 과연 청소년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던 중 한 선생님께서 사회가 만들어 낸 규범에 아이들을 맞추려고 하니 그 규범에 거스르는 아이들은 다 위기청소년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규범들을 하나하나 문턱을 낮추고 없애다 보면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위기청소년도 없어지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위기의 개념을 이야기 하면서 청소년과 성인과의 의견 충돌이 생겼고 서로의 의견을 관철 시키려는 모습으로 토론의 진행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토론의 시간이 충분했다면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이 부족하여 이야기를 끊고 다른 주제로 나아갈 수 있게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기" 라는 부정적 단어에 대한 조정필요, 기성세대들이 정해주는 규범이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규범 형성의 필요, 세대간의 소통이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는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위탁형 대안학교! 우리의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다음주제는 상담관련 종사자 분께서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청소년에게 질문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배우는지에 관해 물으셨고 위탁형 대안학교에 현재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위탁형 대안학교의 구조와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위탁형 대안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고 이에 청소년들이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란 타 대안학교와 다르게 재적학교가 있고 그 재적학교에서 학생을 추천하고 사전준비를 거쳐 입학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위탁해 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방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정책적 문제가 나오자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해 처음 들어본 분들이 조금 어려워 하셨고 실제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위탁형 대안학교의 장단점에 대해 의견을 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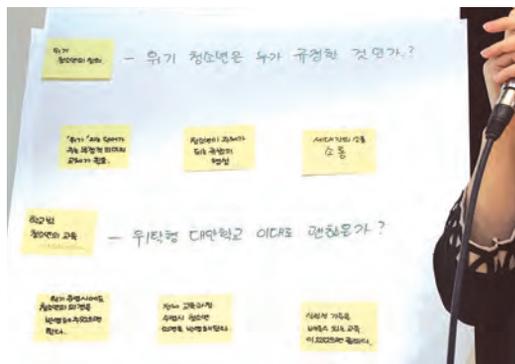
청소년들이 뽑은 장점으로는 본교 선생님들보다 위탁형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친절하다.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등교시간이 본교보다 늦게여서 좋다 등의 의견을 주었으며, 단점에 대해서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본교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쉽다는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위탁형 대안학교가 나아가갈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위탁형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순 국,영,수 수업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오기보다는 단순히 배워야 하니까 들어 라는 공교육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청소년들도 공감하며 그런 교육보다는 자신들이 사회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교육을 이라던지 흥미위주의 수업이 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학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가 있었으면 하고 이를 적극 수용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어 해결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회의 결과물

위기청소년의 정의관련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1.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규범의 형성 2. 세대 간의 소통 3. “위기” 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의 교체를 들었습니다. 위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대상으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는 규범을 형성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육체계에 대한 고민에서는 1. 전체교육과정 형성 시 청소년의 의견반영 2. 실제적 운영 시 청소년 의견 반영기구 마련 3. 단순 국영수 교육이 아닌 기술교육 강화 등이 결과물로 도출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발표 하는 것을 기관에서는 추천 하셨지만 저희 조의 참여 청소년이 고민 끝에 거부하여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회의 결과라 직접 발표하길 기대했지만 강요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의견이 잘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

**조별 토론에 대한**

**평가 및 소감**



연령도, 경험도 서로 다른 처음보는 사람들이 만나 토론이 잘 이루어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여한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눈도 안 마주치고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어서 토론을 이끌어 나가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다 보니 정말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대안학교 강사 선생님도 오래 수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자신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 놓을 수 있도록 경청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전체적으로 기관에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토론회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모두 편안하게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다만 퍼실리테이터 교육이 너무 짧았던 것과 강의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없어서 현장에서 파악해야 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한 주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은 참 매력적 인것 같습니다. 준비기간이 짧아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저, 위기청소년 아니거든요!’

청소년원탁토론회에 들어섰다. 청소년을 본다는 실무자라는 정체성을 들고, 우리 아이들 운운하면서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 실무자로 말이다.

다같이 둘러앉은 자리에 어슬렁 자리에 앉은 세 명의 청소년.

‘위기청소년이네~’, 이미 나의 편견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중 한 아이가 말했다, “제가 위기청소년으로 보이세요? 저 위기청소년 아니거든요?”

아닌 척 나의 포커페이스는 이미 천연덕스럽게 작동했지만, 내 마음은 속을 들킨 것 같은 위기감이 몰려왔다. ‘아이쿠, 이런 내가 위기 어른이구만!’



회의 목표	현재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3가지 적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회의 구성원	7조, 일반인 및 대학생2, 업무종사자1, 청소년3, 총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담당했던 조별 구성원(이름, 소속 등) 소개</li> <li>· 방통대 여성(편의상 김)</li> <li>· 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편의상 이)</li> <li>· 일반 대학생(편의상 박)</li> <li>· 위탁형대안학교 교사(편의상 최)</li> <li>· 청소년A, 청소년B, 청소년C</li> </ul>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3년째 노원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마다 원탁토론회의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원탁토론자로서만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는 입장이었으나, 2016년에는 퍼실교육을 통해 퍼실로서의 역할 수행을 경험한 바 있다. 3시간 동안 퍼실이라는 낯선 개념을 알게 되고 교육을 받음으로 퍼실의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퍼실로서의 역할을 처음 수행해 보았는데 밖에서 보던 퍼실의 역할에 비해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하고, 회의 진행의 균형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미 있는 작업이라 다시 한번 신청하였으나, 역시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경험, 추억이 아닌 삶의 기술로 습득되는 과정이 필요하겠더라는 생각이 들었다.

## 회의 도입

우선 7번 원탁을 선택한 이유는 럭키7이라는 진부한 나름의 설정 때문이었다. 중년의 여성분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원탁 토론회 참여 계기를 주제 삼아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부터 현재 하고 있는 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현재 방동대에서 청소년학과 마지막학기를 남겨두고 있는 분(편의상 김)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 다시 시작한 공부는 본인의 자녀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앞으로 청소년분야에서 직장을 갖기 위한 진입에 있어 고민을 나눴다. 청소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교실 등을 소개하면서 나이가 주는 진입의 한계와 그것을 넘기 위한 내 나름의 방법들을 제시하였고, 이야기는 잘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중구청청소년센터에서 학교밖아이들을 만나는 20대 후반의 남자분(편의상 이)이 함께 참석하였다.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였고, 그분의 조언도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을 지적하였고, 그래서 복지관의 SM(schedule manager)을 추천하였다.

세 번째로 오신 분도 젊은 남자분(편의상 박)인데 청소년학과를 전공중인 분이였다. 말이 없었고, 참여에 무심하지 않았으나 말수가 적었다. 배우고 가길 희망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세명(위탁형 대안학교 재학생)이 자리에 앉았다. 그중에 가장 언변이 뛰어나고, 말수가 많았던 A, 그리고 B는 관심이 있어 보였으나 쑥스러워하여 말을 거의하지 않았고, C는 계속 핸드폰으로 축구를 보는 것으로 일관했다.

굳이 말하고 싶거나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은 B, C에게는 소개시간에 공정한 질문을 하였으나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신 A가 워낙 하고 싶은 말이 많아 그 이야기에 나머지 어른들이 귀를 기울이는 형편이었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분은 위탁형대안학교 실무자로 계시는 여성(편의상 최)이었다. 위의 세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는 선생님이었다.

전체적으로 각자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토론을 시작하였다.

## 회의 과정

주제는 위기청소년이 당면한 문제 3가지를 찾아보고, 그것의 해결방안을 나누기로 하였다. 먼저 첫 5분 내에 모든 구성원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였다.

대부분 청소년 관련 실무자가 아니어서 배가 산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른들의 이야기에 묻힐 수 있을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단 한사람이 한 마디씩을 하는 것이 원탁토론의 기본 전제도 놓치지 않고자 했다.

우선 가장 문제라고 생각된 것들을 조건 없이 그냥 다양하게 풀어 놓기로 하였다. 거시적인 주제이든 미시적인 주제이든 관계없이 생각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하기로 하였다.

1. **청소년A:** 술과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 대해 문제청소년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2. **김:** 저는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3. **이:** 저는 실무자이지만 위기청소년 뒤에는 대부분 위기 가정이 있다는 경험을 해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만났을 때 청소년 보다는 그 청소년 가정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 게 사실이에요. 위기청소년은 없어요, 위기 어른이 있을 뿐이죠.
4. **박:** 저도 어른들이 더 문제라고 보여져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만한 어른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5. **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감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엄마이기도 한니까 위기청소년으로 보이는 청소년하고 제 아이가 어울리는 건 그건 또 두려운 거예요.

위기 청소년이라는 광의 개념으로는 그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낙인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지요. 이기적이랄까, 이종적이랄까. 그런데 엄마의 입장도 포기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딸을 가진 엄마라 더욱...

6. **A:** 요즘은 초등학교 때 가오로 담배피고 하는 게 일반적이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술마시고, 노래방가고, 경찰서도 들락달락거리고, 공문서 위조도 하고 절도도 적당히 해요. 애들은 사실 그럴 때라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겠어요. 그냥 잠깐 봐주면 되는데 어른들은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싫어서 몰래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그렇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제가 위기청소년으로 보이세요? 저는 제가 위기청소년 아니라고 생각해요.
7. **A:** 저는 인식을 정말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가 놀만큼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담배 건만 해도 그래요, 청소년들이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결국은 건강 문제래요,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럼 어른들한테는 좋은 가요?
8. **박:** 맞아요, 저도 어른이지만 A의 말에 적절한 답을 못 찾겠어요. 어른들도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들에게만 피지 말라는 것이 안 되죠. 결국 좋은 어른이 필요한 거죠.
9. **A:**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담배값을 내려야 해요, 아니면 청소년 전용 담배 같은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왜 담배값은 그렇게 올라가지고는 너무 비싸요. 값도 내리고, 맛도 좋은 청소년 전용담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애들 피운다고 맛있게 만들면 결국 애들이 어른들 피는 담배를 피울 거라구요.
10. **이:** 경제적인 상황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부모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해요. 위기 부모가 되는 경우가 반드시 그 자신만의 문제라고만 보여지지 않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위기 가정이 줄어 들 수 있겠죠. 결국은 사회전반적인 정책이나 제도와 사회복지적 차원과도 맞물려 있는 거죠.
11. **최:** 맞아요. 어른들이 맘 편치 않은 세상인 것이 문제예요. 돈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한 부모여야 아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12. **이:** 방임하는 부모도 사실 성숙하지 않은 부모이기도 하죠, 그렇게 부모까지도 나라가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되거나 그러한 부모와 분리해서 케어를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봐요. 위기 가정의 상황을 끊어줄 수 있는 안전망이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불안과 위기상황이 되물림 되지 않을 거예요.
- 13: **김:** 전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인 트라우마 같은 게 있고, 그것이 충분히 치유되지 않은 사회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청소년의 놀이문화가 없는 것도 짚고 싶네요.

1인 1답의 원칙에 맞춰 청소년 B, C에게도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이 없었다. B는 참여하고 있으나 A의 의견과 같다고만 하면서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C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다만 그럼에도 청소년 당사자 A의 의견개진이 활발하고, 재치 있어서 모두들 재밌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리고 우선 서로 틀 없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여러 이야기들을 세 가지의 주제로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그렇게 정리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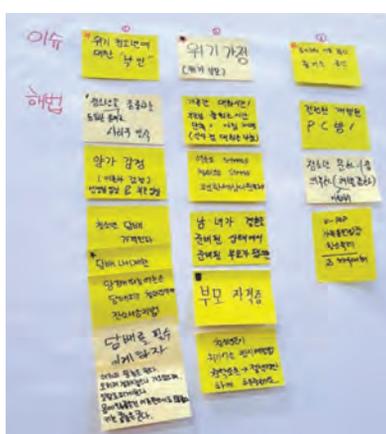
①위기청소년의 인식 문제 '낙인' ②위기가정에서 비롯되는 위기청소년 ③청소년의 놀이공간 부족

**회의 결과물**

**7조의 세 가지 이슈와 해결방법**

**1. 위기청소년의 인식 문제 '낙인'**

- 1)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강화
- 2)청소년을 위한 전용 담배의 만들기-담배가격 인하, 나이제한 철폐, 담배피는 어른은 담배피는 청소년에게 잔소리 금지하기, 청소년에게 담배 필 권리 허용
- 3)청소년의 일탈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인정 필요



## 2. 위기가정에서 비롯되는 위기청소년

- 1) 가족간의 대화시간 필요-우리나라 성인들의 노동과 관련, 쉴 수 있는 권리 필요
- 2) 어른도 청소년도 스트레스 받는 사회, 편히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만들기
- 3) 준비된 결혼,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성숙한 개인 간의 결합 필요, 그럴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문화 조성
- 4) 부모자격증 발급
- 5) 이러한 제안이 정책이 되도록 노력

## 3. 청소년의 놀이공간 부족

- 1) 건강한 피씨방 과 같은 개방적인 놀이공간 조성
- 2)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공간 마련
- 3)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마련

발표자를 정하는 자리에서 A를 추천했다. 의견을 활발히 주고 받을 때와는 달리 뒤로 빼는 척 하였으나 어른들의 응원과 격려로 용기를 내서 하겠다고 하였다. 다행이었고, 이 친구의 발표가 다른 조에도 연쇄적으로 청소년의 발표를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낸 것 같아 뿌듯하였다.

### 조별 토론에 대한

#### 평가 및 소감



- 먼저 퍼실 교육이 너무 수박겉핥기 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아쉬웠다. 1년 전 잠깐의 경험이 나름의 위안이였다. 퍼실 교육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막상 회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드는 마음은 우리 조의 이슈와 해결책이 질적으로 우수해 보이지 않은 것 같다는 비교 때문에 약간의 자책이 일어나기도 했다. 청소년 중사자가 2명 밖에 없어서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여겨짐과 동시에 퍼실인 나의 한계도 함께 작용했을 거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 하지만 그렇게 불쑥 올라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 당사자인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자신의 언어로 잘 드러내고, 어른과 격의 없이 나눴던 점, 늘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주장이 먼저인 세상에서 우리 청소년의 이야기가 빛나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되었다. 함께 즐거웠고, 나름 치열했다. 뭔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니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가는 아쉬움이 있었다.
-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계획되고, 청소년들의 온전한 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라본다.

###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 평가 및 소감

- 주제발표 중 위기청소년에 대한 빅데이터는 의미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 이뤄졌으면 한다.
- 무엇보다 염병훈 선생님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해, 저의 접근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이 컸다.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 대상을 부정적으로 규정짓는 편견에 대한 일침은 반드시 짚어 볼만했다.
- 따지고 보면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대상이 비단 청소년뿐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함께 위기를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원탁토론은 조금은 급하게 모여진 토론자들이 아쉬웠다. 다양한 층위의 청소년들과 청소년관련 실무자들의 난상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퍼실리테이터로서

#### 참여한 소감

형식적인 원탁토론회에 대한 몇 번의 경험 탓에 큰 기대 없이 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 순간 자신의 처한 자리에서 기꺼이 즐겁게, 할 것을 다 하는 자세의 중요함을 새삼 느꼈다. 청소년이 던져주는 날 것 그대로의 언어와 그 솔직함이 즐거웠고, 위기청소년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청소년이라는 경계인의 정체성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참으로 예뻐 보였다. 우리 또한 그렇게 흔들리며 자라왔다는 것, 어른이 돼서도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재잘거리는 그 녀석, 할말은 있으나 이 낮은 자리가 익숙치 않아 보였던 또 한 녀석, 그리고 영 재수 없다는 듯 무심한 또 다른 한 녀석, 이들이 모두 우리가 만나는 청소년의 여러 모습임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위기청소년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야했던 원탁토론회

청정한 원탁 토론회의 퍼실리테이터로서 회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주제로 그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위기청소년’이란 단어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탁 토론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생각이 과연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를 찾아 회의가 진행될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되고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도 주제를 정하고 해결점을 찾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제가 어떻게 회의를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저의 소감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목표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세우고 위기청소년이 겪고있는 가장 큰 문제와 해결 방안 찾기
회의 구성원	8조, 업무종사자2, 청소년4, 총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형 대안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2명과 대안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 4명과 함께 회의를 진행함</li> <li>· 처음 구성원은 종사자 3, 일반인 3, 청소년 3, 퍼실리테이터 1로 비율에 맞추어 구성되었어야 했으나 8조는 일반인 없이 업무종사자 2인과 청소년 4인으로만 구성되어 더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중국에서 오래 생활한 청소년이 2인이나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인해 소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함.</li> </ul>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제가 처음 퍼실리테이션 회의 기법에 대해 접한 것은 회사였습니다. 포스트잇과 전지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한 주제 로 모아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진행을 직접 해보았기 때문에 회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회의의 대상자와 주제가 기존에 진행했었던 회의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제게 있어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토론에 대한 발제를 회의 전 읽어보았을 땐 그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일반인, 종사자,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자로서 그 의견을 하나로 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졌습니다. 저는 위기청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센터에 근무하였을 때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부설기관의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 아이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또한 그런 청소년을 위해 실제로 프로그램을 행해야 했던 저의 고민들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우선 '위기청소년'은 정말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부분 위기청소년은 비행, 불우한 가정환경, 중독 등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했던 청소년 중엔 위기청소년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려운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흔히 말하는 위기청소년의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저의 친척오빠와 같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통해 진정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싶었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내려져야 그들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저의 편견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른은 아이의 말을 수용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시절이 그랬었고, 주변 상황들 역시 그랬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과 청소년 사이에서 생길 마찰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건 첫 번째로 편견을 없애고, 두 번째로 회의의 참석자가 아닌 진행자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가끔 저의 의견이 회의에 들어가 구성원들의 의견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청소년의 경우 더욱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관심있고 늘 참여하고 싶었던 주제지만 이번엔 퍼실리테이터로서 한발 물러서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전 발제를 꼼꼼히 읽고 익힌 후 주제에 벗어나는 상황에서 주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회의 도입**

다른 조에 비해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자기소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청소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어야 했습니다. 간략히 퍼실리테이션 회의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진행자인 저를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이름, 소속, 나이, 자신을 소개하는 간략한 문장으로 구성원 전원 의 자기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청소년 중 중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여 의사소통을 어려워하여 그 2명의 청소년들에 한해 조금 더 간략히 진행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모든 주제에 대해 포스트잇 한 장 이상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진행 주제는 위기청소년이란? 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대해 포스트잇에 적어 제시하도록 했더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청소년은 학교밖 청소년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다 등 그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위기청소년의 정의에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라고 정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이 위기청소년인가?'라고 되묻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 청소년 역시 사회의 편견과 인식에 의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위기청소년이다 라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이유가 왜 인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포스트잇으로 받아 비슷한 주제들끼리 묶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세 가지 위기청소년의 정의이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주제는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두 번째,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 세 번째, 경제적 자립이 부족한 청소년 이었습니다.

### 회의 과정

8조는 처음 도입부분에서 제시한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가지고 과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 밖 청소년, 두 번째, 청소년 불평등, 세 번째, 경제적 자립부족이 8조가 정한 과제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개인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포스트잇에 적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중 대다수는 대안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대안학교 종사자 2인과 대안학교에서 학습활동을 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현재로는 좋지 않은데, 이를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이 다니는 대체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종사자와 청소년 모두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원들은 방송 및 언론을 통한 대안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8조에는 종사자 2인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의 의견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안학교에 종사하면서도 대안학교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과, 대안학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의 의견이 충돌한 것입니다. 대안학교가 없어지는 세상이 진정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에 다른 조원이 그럼 정규 학교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냐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출해야 할 토론의 주제가 많았기 때문에 토론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불평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18세 선거권이 우세했습니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청소년의 권리가 상향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정책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짐으로서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권리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경제적 자립부족의 해결방안으로 청소년지원연금, 경제적 지원에 대한 정책 강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청소년 일자리 제공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 회의 결과물

8조의 최종 결론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결안 \ 과제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불평등	경제적 자립부족
1안	<b>지속적 학습</b> • 대안교육 확대 •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의 연계수업 • 교육체계 및 방향의 유연성	<b>18세 선거권</b> • 청소년 환경 개선 • 청소년은 어린아이라는 성인의 인식 개선	<b>정책적 변화</b> • 경제적 지원 • 중·고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 청소년 자립지원금 • 진로 지원금 • 청소년 지원연금 • 최저임금 상향
2안	<b>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b> • 봉사활동 • 언론을 통한 긍정적 청소년 이미지 홍보	<b>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b> • 봉사활동 • 언론을 통한 긍정적 청소년 이미지 홍보	<b>청소년 일자리 제공</b> • 진로정보 제공

8조의 퍼실리테이션은 도출한 세가지 위기청소년에 대한 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에서 포스트잇을 활용한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었고, 회의 진행 도중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잇에 자신의 의견을 써 전지에 붙이며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었으며 민감한 문제에도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반드시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인지 포스트잇에 열심히 의견을 적어 제출했습니다. 발표 역시 스스로 의견을 내고 회의에 참석해서인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표하였습니다.



**조별 토론에 대한**

**평가 및 소감**



토론을 진행하며 조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 과제와 해결방안을 도출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그들이 이 모든 해결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통한 토론 방식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원탁 토론회에서는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계획보다 발제가 길어졌고, 그로 인해 회의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0명 남짓한 인원이 함께 토론하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90분은 턱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조원 모두가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충돌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좀 더 깊은 해결방안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안에 모든 과제를 마무리 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조원들이 가질 상실감에 대해 생각하니 끔찍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조의 구성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배정될 것이라 안내 받은 구성원과 달랐으며 청소년이 너무 많았습니다. 적절한 구성원이 배분되었더라면 더욱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회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만족감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센터 실무자로서, 전공자로서 너무 틀에 박힌 사고를 가지고 청소년을 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안 학교 실무자와 청소년들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참여 청소년이 자신을 위기 청소년이라 부르는 이유에 대해 저에게 직접 말해보라고 했을 때입니다.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제가 그 청소년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그 것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 그 청소년을 위기 청소년이라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원탁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새로운 시야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발제가 너무 길었으며 토론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토론회의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간식을 미리 책상에 세팅해 두었다면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계획한 대로 토론 참여자의 비율과 인원수가 맞지 않았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인원수와 비율에 맞게 진행하려고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소용 없게 되었을 때 상실감이 생겼습니다.

발제를 진행할 때 PPT를 활용하였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인물에 의존하여 발제를 듣는 중 졸리고 지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PPT를 활용한다면 더욱 이해도 쉽고 집중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원탁 토론회 퍼실리테이터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저에겐 큰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경험만 많았던 제가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경험은 보물과 같았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면 항상 저의 목소리를 내는데 급급했었는데 퍼실리테이터로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니 회의의 흐름과 본질이 보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걱정되었던 위기청소년의 정의와 참여자들의 참여도는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인식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이가 참여한 토론의 결과물이 진정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위기청소년정책'에 우리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간

위기청소년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해결방안들, 실용적인 위기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는 청소년과 현장지도자들의 열정에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위기청소년이죠?”라는 청소년토론자의 질문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왜 위기청소년은 단 한명도 없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위기라면 앞으로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청정한 원탁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우리들의 목소리가 멋진 정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회의 목표

오늘의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 3가지 찾아내기!

### 회의 구성원

저는 9조의 퍼실리테이터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조에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2명,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청소년 1명, 대안학교에서 근무중인 지도자 1명,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중인 지도자 1명,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청소년학을 공부하고 계신 성인 1명 총 7명이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탁토론회는 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얼굴을 마주보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원탁에 청소년, 기관종사자, 일반인들을 고루 배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 더 좋은 시너지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의 의견에 여러 관점의 의견들로 보완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기관 종사자들과 성인들이 직접 들을 수 있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 청소년이 결코 위기가 아님을, 여타 청소년들과 다를 것 없는 꿈 많고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왜 위기청소년인가요? 라는 청소년의 질문은 정말 테이블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위기청소년이라는 명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 사전준비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좋은 기회에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역내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등에 참석하여 배운 기법들을 익히면서 다듬어 왔습니다.

원탁토론회의 가장 큰 장점은 구성원 모두가 마주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다양한 관점의 의견들이 보완되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과물은 나올 수가 없는 큰 맹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구성원들 모두가 고루 의견을 내고 원활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준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저는 먼저 발제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며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 보았지만 상대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만날 기회는 적었기에 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는 지에 대해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습니다. 음주, 흡연, 도박, 가출 등 모두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빅데이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며, '과연 위기청소년들의 의견도 이렇게 나올까?'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일반청소년, 성인들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저는 구성원들과 위기청소년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들에 노출되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회의를 통해 고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위기청소년 2명, 대학생 1명, 기관종사자 2명, 일반성인 1명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참석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기청소년 2명이 회의에 참석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 회의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사자들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현주소에 대해 듣고 그들의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두 청소년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남은 구성원들이 의견을 보태고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고민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관련 발제발표를 들으며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늦은 참석자, 잠시 자리를 비운 참석자들에게 요약하여 핵심 내용들을 짚어주고, 참석자들 모두가 주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인식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회의 도입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원탁토론회를 참여해보면서 첫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도출되는 결과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참석자들이 생길 때마다 기본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 지역, 취미, 이슈거리, 유머 등 참석자들이 서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가십거리등을 나누었습니다.

형식적인 자기소개가 아닌 오늘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포스트잇에 적고 왜 그런 단어들을 적었는지에 대해 묻고 답하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것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들을 나누고 서기가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한명씩 돌아가며 의견을 낼 것인지, 포스트잇을 이용하여 생각하는 바를 적어 내고 그에 맞춰 의견들을 낼지 모든 것은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 회의 과정

포스트잇에 이슈들을 적고 의견들을 나누고 이슈를 정하고 해결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회의 진행방법을 정하고 각자의 포스트잇에 이슈들을 적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었습니다.

토론참석자가 적었기에 최대한 많은 의견들을 듣고자 의견에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바를 적고 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의견들을 테이블 중앙에 모아서 유목화 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진로, 가정, 정책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짓고 의견을 내준 이유에 대해 모두가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스티커를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 3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들도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기관종사자 및 사회복지계열 대학생, 자녀들을 키우는 성인이 주된 참석자였던 것이 회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역할들을 했던 탓인지 이슈 3가지가 정책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회의 결과물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토론참석자들은 회의에 빠져들고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렇게 도출해낸 결과를 조금 더 현실적이게 뼈를 만들고 다양한 방법들로 살을 붙였습니다.

### 1. 위기청소년 발굴 시스템 도입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안과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들 모두가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관의 홍보에도 한계가 있고 학교도 위기청소년에 대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안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도 위기청소년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능만 할 뿐 명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기청소년지원시스템을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찾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력 배치(형식적 상담교사가 아닌 전문가)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청소년 전수 조사를 통해 명확한 수와 원인 및 위험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2.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방안(사람/공간)마련

전문기관(상담, 대안학교)등에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선생님들은 항상 업무와 사업에 바쁘고, 기관의 수가 너무 적다고 합니다. 기관종사자인 선생님도 정말 중요한 청소년인데 일에 치이는 자신을 보며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출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하려고 해도 많은 조건들이 따라붙어 이조차도 구속으로 느껴 발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한다면서 모든 정책과 전문인력, 장소에는 업무라는 수식어만 가득하고 정작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 3.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의견을 낸 청소년은 청소년시기에 꿈은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학교에서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찾을 수 없어서 학교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도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로박람회를 가도 모두 바리스타, 제빵 등 늘 보아오던 그저 그런 것들만 진행되는게 현실입니다. 자유학기제도 결국에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역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의견이 있었으며, 공교육과 청소년정책 모두에 있어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현실적이고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3가지의 의견들에 대해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본 결과 도착한 결론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청소년정책인데 청소년은 어디에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청정한 원탁토론회'가 위기청소년들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청소년들이 꼭 들어있기를 바라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조별 토론에 대한**

**평가 및 소감**



테이블을 구성인원을 청소년, 기관종사자, 성인으로 구성한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신선한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청소년의 입을 통해 듣고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위기청소년들을 테이블에 더 많은 비중으로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한다면 위기청소년 정책이 정말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청소년, 기관종사자, 성인들로 테이블 구성이 되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들을 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위기청소년에 대한 정책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정책 및 사업에 반영 할 계획이라면 결과를 예산으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지역의 의원 및 담당행정부서의 주무관들이 함께 토론에 참석하여 준다면 더 큰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청정한 원탁토론회가 운영된다면 올해 있었던 결과물들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주셔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희망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퍼실리테이터로서 다양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참여해봤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이들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때 이들의 생기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다는 눈빛을 보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더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퍼실리테이션이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도움을 주러 가고자 합니다.



## 따로 또 같이

위기청소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정한 원탁토론회는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단순한 발제와 의견토의가 아닌 현직 지도자, 일반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편하게 나누고 그에 따라 우선순위로 선정되는 의견을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토론회라는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는 항상 딱딱하고 재미없는, 다른사람들만 얘기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주가 되는 훌륭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조에서 진행된 내용을 기재하였으니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회의 목표

현재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3가지 적고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 회의 구성원

- 10조, 청소년 2명, 업무종사자 3명, 일반인 및 대학생 2명 총 7명
- 조별로 비율을 나누어서 모듬을 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받고 비율을 구성 하였으면 조구성원도 미리 정하여 자리를 안내해주었으면 훨씬 수월했을 것 같다
- 청소년/일반인/업무종사자의 그룹을 따로 지어 똑같은 주제에서 시각이 다른지, 비슷한 의견은 어떤견지에 대한 비교분석도 진행을 해도 될 것 같다

회의 날짜 및 시간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15시~16시 1시간

**사전준비**

- 2016년부터 퍼실리테이션에 관심도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퍼실리테이션을 통하여 다양한 행사도 운영하고 있어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몇차례 진행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리딩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진행방법에 따라 다른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사용이 될 것 같아 본 행사에서 진행되는 방식에 맞추어 교육을 받고 테이블을 운영하였다
- 당일 운영되는 자료를 늦게 받아 자세히 읽어 볼 시간이 부족하였지만 훌륭한 발제 및 토론자 분들을 모시어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퍼실리테이터는 의견제시가 아닌 조율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 오전 교육, 오후 발제를 통하여 본 행사에 적합한 퍼실리테이션 방법을 생각하였고 마감 시간이 촉박하고 테이블 참가자들과의 교감 시간이 적어 말보다는 글로 의견을 적고 그중에서 대표가 되는 단어를 설명하고 구조화 하여 의견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 도입**

시작 전, 토론회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하여 오늘 진행 될 토론시간과 방법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진행하였음. 먼저 본 테이블에서 진행을 맡은 테이블퍼실리테이터를 소개하고 역할에 대하여서는 테이블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는 허브 역할이고 그에 따라 정리하여 구조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각자의 소개 전에 간단한 테이블 룰을 설정하였음

1. 타인이 이야기 할 시에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기
2. 타인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의견은 이야기 하지 않기
3.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한 사람당 발언 시간은 1분을 넘지 않기
4.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의 작은 룰을 설정하고 위 룰에 문제가 생길 시에 테이블 퍼실리테이터만 의견조율을 하도록 함

이후에 자기소개는 특별한 주제를 정하진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참여한 계기, 소속, 각오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회의 과정**

**1.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위기청소년의 이슈에 대하여 자유롭게 포스티잇에 작성해보기(매수 제한 없음)**

한 사람당 한가지의 의견을 이야기하기에는 나올 수 있는 의견이 적었을 거고 중복되는 내용은 피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먼저 포스트 잇을 통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이야기를 쓰고 본인 앞에 정리하여 붙여놓기로 함

**2. 포스트 잇에 작성된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의 의견 이야기 하기**

다양한 의견중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왜 이 주제 혹은 단어를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봄

**주요의견**

게임중독, 도박중독, 건전한 놀거리, 청소년은 ~ 하면 안된다, 우울, 흥미, 가정교육, 욕구불만, 주입식 교육, 어른과의 소통, 책임, 의견 제시 창구, 경험부족, 어른의 인식, 진로, 잠재력 찾기, 부모교육, 학교폭력, 무기력, 건강관리,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 대안책, 가족해체, 비행예방,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 등

청소년의 의견중에 청소년은 ~ 하면 안된다라는 학교 혹은 어른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청소년이 하는 일을 억압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 와중에, 현직 근무자가 중간에 반박을 하며 의견을 개진하려 해서 테이블 퍼실로서 의견 제시를 막고 여기는 반박하고 가르치는 자리 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하였음

### 3. 의견의 구조화

언급이 되지않는 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묶고 정리하여 테이블 참가자들이 전부 볼 수 있게 전지와 판을 사용하여 정리

### 4. 테이블 대표 주제 정하기

구조화된 내용을 토대로 스티커를 나눠주어 하나의 의견이 아닌 공감되는 단어 혹은 의견 전부에 하나씩 에 붙일 수 있도록 진행함

### 5. 해결방법 논의

10조에서는 가장 큰 이슈로 중독(게임, 도박 등), 청소년은 ~ 하면 안된다, 진로의 세가지의 이슈가 투표로 선정되어 이에 따라 각자의 해결방법을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의견을 작성하여 붙이기로 하였음 주제 선정과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가장 공감가는 해결방안에 대한 스티커를 붙여서 회의과정을 마무리 함



## 회의 결과물

회의 과정을 통하여 끌어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의견이 나온 모든 방법이 전부 해결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투표가 많이 된 대표 해결방법만 발표하기로 하였음. 청소년을 위한 토론회 자리이기 때문에 참가 청소년에게 발표를 요청하였고 흔쾌히 수락하여 가장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음

#### 1. 중독

- 중독=질병이라는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놀거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우울, 소외감과 같은 기본적인 정서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

#### 2. 청소년은 ~ 하면 안된다?

- 어른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중간지대 찾기
- 다양한 정책(학교 등)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책임질 수 있는가? 의 물음이 필요

#### 3. 진로

- 다양한 교육, 체험, 잠재력 찾기 개발
-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 부모에 대한 교육 필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 조별 토론회에 대한

#### 평가 및 소감



테이블마다 퍼실리테이터의 성향과 능숙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계층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뒀서 각자의 의견에 대하여 귀 기울일 수 있던 시간이 되었으며 또한 공감가는 내용도 상당히 일치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중간에 참여하거나 일찍가는 참가자가 있어서 중간에 흐름이 끊겨서 짧은 시간에 또다른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사전에 공지를 철저히 하고 참가자에게도 당부를 해야 할 것 같다.

---

**전체적인 토론회에 대한 평가 및 소감** 참가자는 들러리만 서는 토론회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진행을 하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배울 점 많은 토론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사전 참가자 선발이 완료되고 미리 조도 구성이 되었으면 하는 점과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퍼실리테이터들에게 진행된 교육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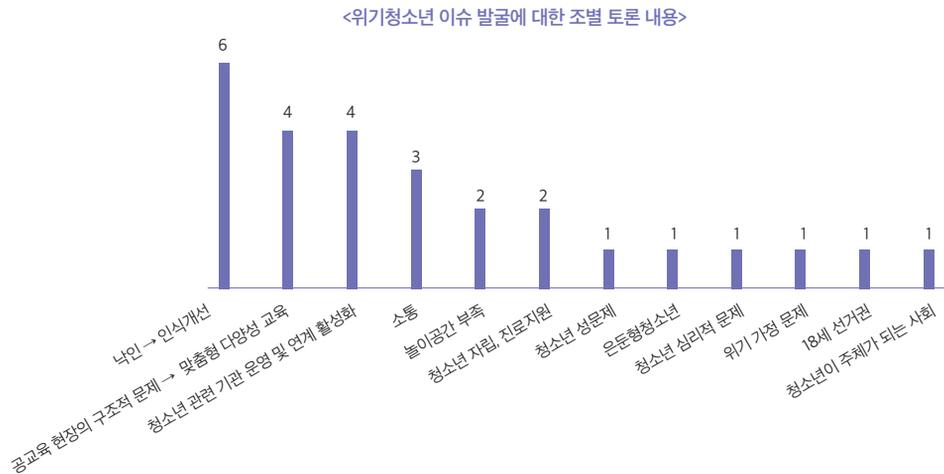
**퍼실리테이터로서 참여한 소감**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배웠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또 다른 장소에서 활용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발전하여 테이블에서 원활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으며 이러한 토론회가 더욱 더 많이 운영되어 센터 자체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겠습니다.

---



## 위기,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드림센터 교육팀의 2017년 평등한 소통의 축제였던 청정한 원탁토론회가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을 주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각 조별 토론 내용의 정리와 토론회의 의의 점검을 통해 토론회를 돌아보려 합니다.



원탁 토론회는 10개의 조로 나누어 각 조별 퍼실리테이터의 주관 하에 청소년 전문가 및 실무자, 관련 학과 대학원생(대학생), 청소년 등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퍼실리테이션의 방식으로 위기청소년의 3대 과제를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각 조별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14개의 과제(중복된 과제 포함)가 도출되었습니다. 조별 과제(제안) 중 가장 많이 나온 의견으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낙인감(6개조)**, **공교육 현장의 구조적문제(4개조)**, **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연계 활성화(4개조)**의 공통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구조적문제**에 대한 이슈로는 주입식교육의 역기능, 획일화된 교육과정 및 입시교육의 근본적 변화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교밖 또는 경계선상의 위기 청소년이 되는 경우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것이 어찌하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감**에 대한 이슈 제기는 위기와 비위기를 나누는 방식이 공교육으로부터의 탈락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한 청소년의 문제제기 또는 항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며, 공교육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위기 청소년으로 낙인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및 연계 활성화의 대한 요청은 이들의 제도권 학교를 벗어나 대안학교를 넘나들며 하게 되었던 다양한 경험 속에서 청소년 관련기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탁토론회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은 '위기청소년이란 위기 상황의 청소년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교육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는 결코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림센터 교육팀의 위탁형 대안학교와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들이 주로 토론에 참가하였고 토론회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이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나머지 업무 종사자 및 대학생, 일반인들의 시야를 넓히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는 위기청소년 특화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자신만의 학습을 이루어내는 청소년조차 이런 부정적 시선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행 또는 별다른 개인적 위기상황이 없이도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위기 자체로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는 세상의 시선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본인들은 그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낙인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소통(3개조)에 대한 이슈는 위기 청소년들이 소통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정과 또래 사이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통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 때 그들과 소통하고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줄 존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소통의 부재는 청소년들을 더 큰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별 과제 두 개 조에서 공통으로 나온 이슈는 청소년 자립과 진로지원(2개조), 놀이공간 부족(2개조)으로 나타났습니다. **놀이공간의 부족**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청소년 이슈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쟁과 서열화를 통한 입시교육의 환경에서 공교육에서 탈락되거나 그 경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놀 거리,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찾고 있지만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만이 청소년 성장의 도구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차단한 채 성인의 환락적인 놀이문화에 빠져들어 성인의 흉내를 내며 똑같은 어른으로 성장해 갑니다.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청소년의 놀이를 청소년 성장의 과정에서 또 다른 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청소년 자립과 진로지원**에 대한 이슈는 맞춤형, 다양성 교육의 이슈와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 대다수 청소년에게 제도권의 교육이란 그저 대학을 가기위한 수단일 뿐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은 정작 대학에 진학해서 하게 됩니다. 자립과 진로 지원에 대한 요청은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자립과 진로를 준비할 때 오히려 교육에 대해 현실적인 욕구가 생겨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학력에 기반한 우열보다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로 나아가리라는 전망속에 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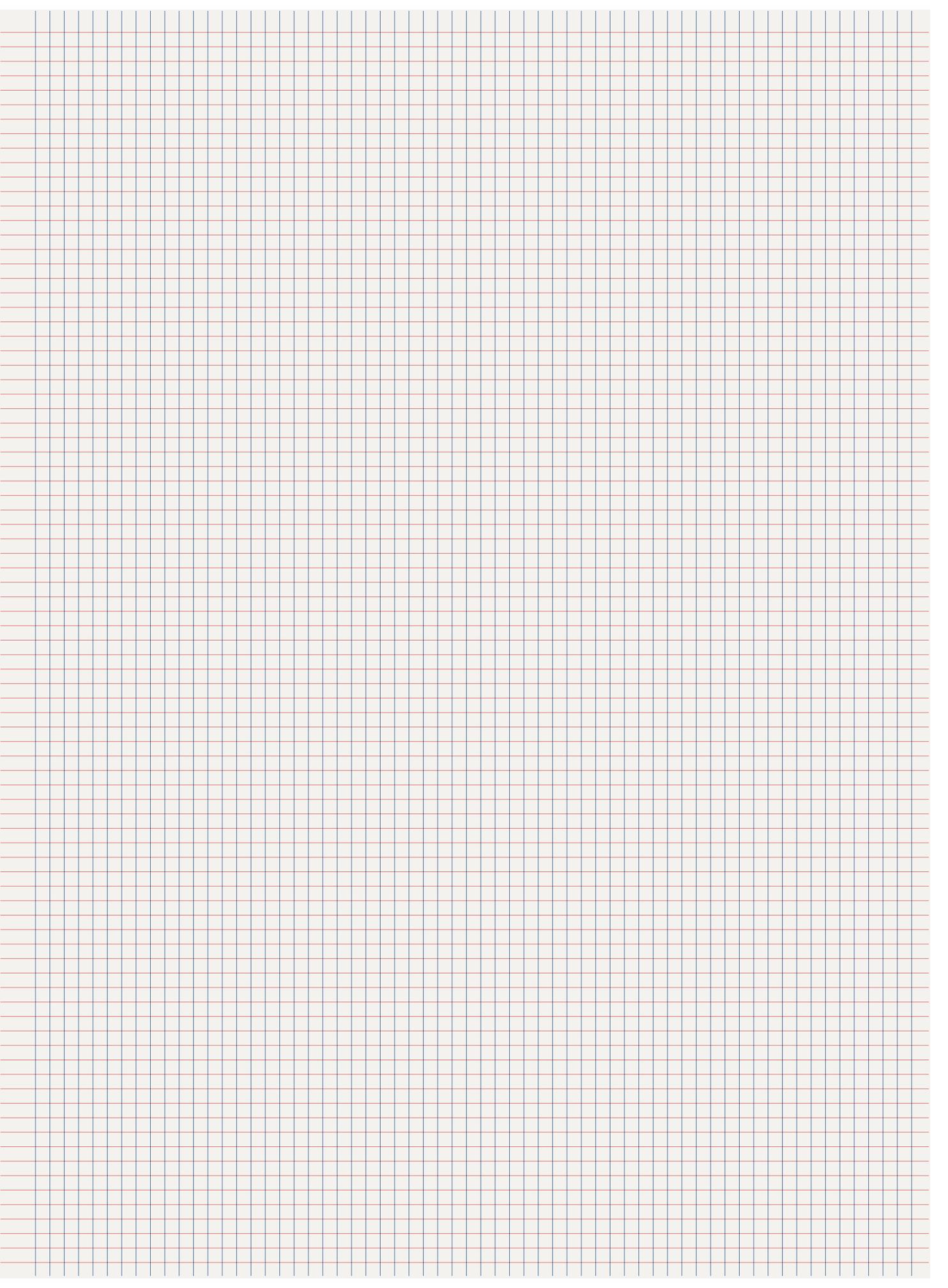
렇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하나의 교육 시스템으로 모두 통합할 수 없으며 그들을 위한 다양한 자립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원탁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이슈들은 현 사회의 위기 청소년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성비행과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성교육의 이슈는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은둔형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는 점차 이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슈입니다. 또한 비행문제 폭력문제 등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가정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 스스로 가정문제를 이슈로 제기할 만큼 가정문제는 근본적이며 해결의 방법 역시 쉽게 찾기 어려운 이슈입니다. 마지막으로 18세 선거권 이슈는 위기 청소년 문제뿐 아니라 청소년 정책 자체를 좌우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이슈이나 기타의 다양한 이슈로 제기된 것은 아직은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관점의 이슈들을 종합해본 결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현재 청소년들을 만나는 교육 현장 및 기관이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지원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하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은 이런 다양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교육시키기에 부족하며 마치 한가지의 목표만을 준비시키는 학원과 다름없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담아 낼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이 가는 각자의 길이 위기라는 말로 규정되어 모두가 틀렸다고 바라볼 때 그것이 그저 서로 다를 뿐이고 이를 위한 사회의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은 그 생생했던 목소리들을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제안, 토론회 참가자들의 위기청소년 이슈 발굴 회의 내용 등 토론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뜨겁고 더 긍정적으로 희망을 발견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교육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061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산성동 1기-1)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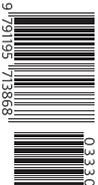
[www.dreamcenter.or.kr](http://www.dreamcenter.or.kr)

Tel

02-2051-8600

Fax

0504-984-4623



9 791195 713868

ISBN 979-11-957138-6-8

03330 비매품